朝鮮日報
夕刊
三日 (木)

伊太利軍隊及其也 國境線을突破侵入!

伊太利政府、衝突은否定하나 越境侵入은事實인듯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軍의 國境線突破報道를 確認하고 二日午前 如左히發表하엿다

에리트리아駐在伊太利軍은 二日午前 에디오피아、에리트리아國境線 東南端을 突破하야 에디오피아領에 侵入하엿다 伊太利軍의 前線은 國境線으로부터 三十키로의 무사리山(六、七五〇呎)附近을 通過하야 그西方 아우사平原東邊에 達하엿다 但 伊에兩軍은 아직衝突되지는안헛다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確聞하건대 國境을 突破한 伊太利軍은 其數約二萬에 達하는데 三部隊로 分하야 進行하야 아우사平原에 侵入한것으로 侵入直後 벌서 國境地帶의 에디오피아士民兵과 衝突하야 雙方에 相當한 死傷者를 낸模樣이다 死傷者數 其他詳細는 아직 明確치 안타 但 伊太利軍과 에디오피아正規軍의 衝突은 아직 開始되지안헛다 伊太利軍의 一隊는 아우사平原地帶를 占據하야 이것을 根據地로 一大攻勢를 取할것으로 보인다

【羅馬二日發聯合】에리트리아駐屯 伊太利軍은 總指揮데보노將軍의 命令一下 出動을 開始하는 同時에 北方部隊는 長驅하야 父祖宿怨의 戰地 아도와를攻擊하야 이미 同地를 占領하얏다고 傳한다 但 右報道는 아즉 流言의 範圍를 벗어나지안허 伊太利政府當局도 아즉 이것을 確認하지안는다

【羅馬二日發電通】伊太利軍이 에리트리아國境을 突破하야 伊에兩軍에 衝突이 起하엿다는 報道는 各方面에 異常한 衝動을 與하엿는데 伊太利外務省代辯者는 이것을 否定하고 如左言明하엿다

에디오피아軍의 敵對的態度는 益益甚하기때문에 에리트리아의 伊太利軍이 戰略上 有利한 某新地點에 移動한것은 事實이나 兩軍에 衝突이 起하엿다는 報道는 全혀 無根이다 그리고 伊太利軍이 佛領소말리란드에 新設한 地點으로부터 越境하야 에디오피아領의 一部를 占據하얏다는 說에 關해서는 「이地方의 國境은 明確치안타」라고 述하야 越境與否에 對해서는 明言을 避하엿다

【아디스아베바二日發電通】에리트리아國境方面에서 伊에兩軍에 衝突이 起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에디오피아政府當局은 그런 事實은 全혀 알수업다고 答하엿다

【羅馬二日發電通】伊太利軍宿怨의地 아도와를占領하엿다는 報道가 外國方面에 傳하엿는데 伊太利政府는 이것을 公式으로 否定하고 如斯히 短時間에 아도와를 占領하기는 不可能하다고 言明하엿다

【羅馬二日發聯合】伊太利軍의 아우사平原侵入에 對해서는 그後 後報가 續續到着하야 伊太利政府는 各方面의 照會에 應接할 餘暇가업는 形便인데 右報道를 否定하고잇는 新聞은 二日夕刊에 至하야 現地의 事態不明으로 伊軍의 侵入이 事實인지 아닌지 알수업다고 言明하엿다 (寫眞은 伊首相)

伊軍에國領內에 攻擊陣地를構築

맛사·아리山麓東西八百키로에亘하야 에政府部內俄然緊張

【아디스아베바二日發電通】伊太利軍이 에디오피아領內에 侵入하야 攻擊陣地를 構築하얏다는 報道에 關하야 그後 情報에 依하면 伊領에리트리아와 佛領소말릴란드間에 東方紅海로 向하야 傾斜해잇는 에디오피아 領內의 맛사·아리山麓 東西八百키로에 亘하야 陣地가 築造되엇다고한다 最初伊太利軍은 伊領에리트리아의 맛사브港으로부터 南方에向하야 六個의 軍用道路를 築造하고 그後山麓을 迂回하야 東方에 向하야 陣地를 構築하고 佛領소말릴란드에 가까운 山麓에 幅二百米에及하는 新軍用道路를 設하엿스며 또 前進하야 에디오피아國境三十키로의 地點에 前進하야 陣地를 設置한것이다 에디오피아側에 들어온報道에 依하면 맛사브南方에 待

皇后陛下 宮城에還啓

【東京電話聯合】皇后陛下의 御慶事는 來十二月中旬頃의 御豫定이시라고 하는데 夏期中 葉山御用邸에 御滯在하옵시던 皇后陛下께옵서는 極히 御順調이신데 三日午前十一時二十五分 東京驛御着 八十日만에 宮城에 御還啓하옵시엇다

閑院宮春仁王殿下 總督府를御訪問

二日御入京 朝鮮호텔에서 一夜를 보내신 閑院宮 春仁王、同妃兩殿下께서는 三日午前九時호텔을 御出發、總督府를 御訪問、景福宮內의 勤政殿、博物館等을 御興味깁게 御覽하시고 同十時三十五分 京城普通學校에、同十一時十分 南大門小學校에 가시어 初等學校兒童의 敎育을 御觀察하시고 同十一時五十分 龍山總督官邸의 宇垣總督招待午餐會에 臨하시엇다

海軍協會 仁川支部發會式

三日午後二時에 仁川府公會堂에서 海軍協會仁川支部의 發會式을 擧行하엿다는데 今井田政務總監、總督代理井上遞信局長、海軍大臣代理鎭海[illegible]用掛等이 參席하야 盛大한 發會式을 擧行하엿다한다

國境突破歸還한 伊太利領事被逮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아도아駐屯에디오피아軍은 二日 아도아駐箚 伊太利領事프랑카氏를 逮捕하엿다 프랑카領事는 에디오피아政府의 命令을 無視하고 直接 國境線을 突破하야 에리트리아歸還을 企圖하엿기때문에 逮捕되엇다고 傳하는데 結局 에디오피아軍護衛中에 에리트리아로 向하기로 되엇다

全員閣議開催코 最惡境遇對策協議

伊에兩國開戰은不可避라고 英全閣僚意見一致

【倫敦二日發電通】伊에紛爭에對한 英國의 態度 特히 對伊制裁에 關한 具體的方針을 決定할 重要閣議는 쥬네브로부터 歸來한 이든無任所相을 마저 二日午前十一時부터 午後一時까지 約二時間에 亘하야 다우닝街十番의 首相官邸에서 開催하얏는데 參集한 閣員等의 見解는 假令 聯盟이 如何히 防止策을 講究하려고 하더라도 벌서 뭇소리니伊首相으로하여곰 對에開戰을 全然 中止시키기는 不可能하다는데 一致하야 協議의 中心은 伊에 戰爭에 處하야 英國이 如何한 對策을 取할것인가에 集中되엇다고 確聞되다

【倫敦二日發聯合】英國政府全員閣議는 二日午前十一時三十分 다우닝街十番地의 首相官邸에서 開催하고 쥬네브로부터 急遽歸還한 이든無任所相을 迎하야 重要閣議를 開催하엿다 閣議에는 하리팍스陸相이 조지五世陛下 拜謁參內때문에 缺席한外에 맥도날드樞相、호어外相、몬셀海相、리스터空相、맥도날드植民相以下 全員 二十二名이 出席하야 먼저 이든無任所相의 쥬네브의折衝經過를 報告하엿다

【倫敦二日發聯合】二日 午後의 閣僚會議는 五十分後 午後三時 散會하엿다 午後의 閣議에는 몬셀海相、하리팍스陸相、리스터空相의 三軍部大臣이 出席한外 空軍總司令도 參加하얏다 閣議散會後 海軍 軍令部長 外務次官等도 參加하야 協議하엿는데 突然 國防會議의 感을 呈하엿다 閣議內容에 對해서는 當局은 一切 沈默을지키고잇스나 消息通의 觀測에 依하면

一、聯盟規約 第十六條 制裁規定을 適用할 境遇에 伊太利에 對한 具體的處置

一、聯盟理事會가 徹底的對策을 決定하야 各國이 行動을 開始함에 압서 伊太利가 抗議를 開始한 境遇의 對策等을 中心으로 協議하엿다고 보인다

陸海空三相에 對해서는 午前의 閣議決定에 基하야 三相은 모다 萬全의 策을 講究하야 最惡의 境遇에 備하라는 旨를 거듭強調하엿다고 보인다

【倫敦二日發聯合】全員閣議散會後 繼續하야 二日午後三時부터 다시 第二次閣僚會議를 開하고 맥도날드樞相、챔버렌藏相、와이먼內相、호어外相、맥도날드植民相等 重要閣僚 長老等이 出席하고 軍部大臣은 하리팍스陸相、몬셀海相、리스터空相外에 空軍總司令도 特히閣議에 出席하얏다 午前의 全員閣議의 決定에 基하야 다시 重要協議를 遂할것으로보인다(寫眞은 볼드윈氏)

이든氏다시壽府行 途中佛首相과協議

【倫敦二日發電通】이든氏는 三日朝 倫敦出發 巴里에 赴하야 라발佛首相과 英佛關係의 協議한 結果에 基하야 歸倫한後 國聯제네브로 向하기로 되엇다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맛사브를 根據로한 伊太利軍이 이미 佛領소말릴란드에 接近한 에디오피아領內에 進出하야 二個所의 攻擊陣地를 構築하엿다는 情報가 들어왓기때문에 에디오피아政府內는 俄然 緊張을 呈하게되엇다

英外陸兩相 方針言上

【倫敦二日發聯合】호어外相은 二日午前十時十五分 버킹검 宮殿에 伺候하야 조지五世陛下께 拜謁하고 二日重要閣議를 앞두고 미리 政府의 外交方針에 對하야 言上하고 午前十時五十分에 御前을 退下하엿는데 繼續하야 하리팍스陸相도 陛下께 拜謁하엿다 陸相은 호어外相과 同樣으로 閣議에 압서 埃及、[illegible]方面의 陸軍의方針을 言上하엿다고 解釋된다

模擬總動員令에 伊國民俄然緊張

【羅馬二日發電通】伊國에 亘하야 全國民의 緊張裡에 期待하고잇던 總數一千萬이 넘는 全國青、壯年팟시스트에 對한 模擬總動員은 二日午後三時卅分 突然 發令되어 全國各地의 工場의 싸이렌 敎會의 鐘、特設한 『북』이 一齊히 鳴動하야 全國民에게 對하야 所定의 場所에 集合하라고 命令하는 音響을 傳하얏다

切齒扼腕三十年 欲忍難忍의時期迫到

我國에挑戰者엔 以齒向齒로報復!

무首相의獅子吼

【羅馬二日發電通】뭇솔리니伊首相은 模擬總動員으로 熱狂한 全國民에게 向하야 二日午後六時三十分부터 壯烈한 라디오演說을 放送하야 에디오피아에對한 宿怨、歐洲大戰後의 戰勝國間의 分配에 對한 不滿을 비로소 率直히 表白하고 全國民이 一心一體가되어 斷乎 모든 外敵의 壓迫을 물리치고 東阿遠征의 宿志貫徹에 邁進할 決心을 强調하야 松明과 칸테라의 불빗치 아릿아릿한 베네치아廣場에 모힌 五十餘萬의 大衆을 前에하고 十八分동안 如左한 激勵를 吐하매 群衆은 熱狂하야 喝采를 連呼하야 昂奮한 劇的場面을 呈하엿다 뭇솔리니首相의 演說內容은 如左하다

全伊의 黑衣革命軍으로부터 山岳과 太陽을 넘어 世界到處에서 그部署를 지키고잇는 모든 伊太利軍이어! 내말을 들어라! 吾人은 伊太利에對하야 切齒扼腕을 繼續한것이 이에三十年 드듸어 忍耐치못할 時期에 遭遇하엿다 回顧하건대 一九一五年 우리伊太利가 그 國運을 賭하야 歐洲大戰에 參加한때 伊太利를 爲하야 如何히 만흔 約束이 에디오피아에對하야 締約되엇던가를 想起하면 國民은 지금 [illegible]한 바 잇섯슬것이다 그럼에도 平和回復에 際하야 戰勝國이 植民地를 채려노코 豊富한分割의 盛宴을 베푼때에 이무엇이나 伊太利에서 與한바는 一塊의 休紙가 아니엇드나 그런데 지금 聯盟內에서 對伊制裁의 議가 論議되고잇는바 勿論 나는 참으로 英國自身이 文明國과 伍함에 足하지 아니한 阿弗利加의 野蠻國을 擁護하기爲하야 갓진 피를 흘리리라고는 信賴할수가 업다 假令 그러한 風說이 傳한다 하더라도 이눈으로 그것을 目擊하지 아니限 如斯한 奇妙한것을 믿을수는 업고 또 佛國人民이 此種制裁의 끄리를 물고 戰爭行爲를 하리라고 생각되지안는다 그러나 萬若 萬一 如斯한 風說이 幾分이라도 實現된다면 吾人은 斷乎 以齒向齒하고 戰爭에는 戰爭으로써 報復할 覺悟이다 軍事的制裁가 온다면 軍事的對抗手段으로써 向하지 안흐면 안된다 經濟的制裁가 온다면 平素의 習慣한 訓練과 犧牲的 精神의 發揮와 아울러 이것을 突破할뿐이다 지금 무어슬 두려워하랴! 내가 二日夕을 期하야 맛시스트總動員을 發令한것은 實로 重大時機를 諸君과 함께 痛感하기爲함이다 지금 約一千萬의 士人은 全國의 街上에서 未曾有의 動員令에 服하면서 단하나의 心臟으로 鼓動하고 단하나의 意思 단하나의 決定에 奉하어잇다 참으로 이不死의 民族은 有史以上 最大의 緊張한 歷史的時期를 지금 體驗하고잇는것이다 지금은 이時期가 멀리 海洋을 넘어 南阿弗利加에 잇는 우리將兵의 귀에 達하야 바야흐로 戰鬪를 開始하려고 待機中인 彼等에게 一脈의 勇氣를 與하기를 希望하고 또 同時에 이時期가 友邦에 向하야 吾人의 意思를 알리게하고 敵國에 向해서는 警告를 發하는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機會에 吾人은 今回의 植民地紛爭이 歐洲全體에 波及치안토록 모든 努力을 盡할것이라는것을 全世界의 모든사람에게 告한다 伊太利는 歷史的으로 正當化될수잇는 主張을 主張할뿐이다 國民의 이信念은 事態의 推移如何에 不拘하고 微動도 밧지안흘것이다

聯盟、理事會緊急召集?

【쥬네브二日發電通】伊太利軍이 侵入하엿다는 에디오피아皇帝의 親電에 對하야 게나스理事會議長은 말하엿다 압놀事務總長이 今日쥬네브에歸還할터이므로 同氏와 緊急理事會召集의件을 協議할豫定이다

對英軍援助를 佛首相이미內諾

【倫敦二日發電通】確聞하건대 英國政府는 地中海上 英國海上勢力이 攻擊을 受할 境遇에는 佛國의 援助를 期待해도 조흔가 그與否의 質問에 對하야 即時 肯定의 回答을 라발首相으로부터 바덧다고한다 勿論 四日의 佛國閣議에서 全員承認을 得한後 發할 順序이나 英國政府가 事態의 重大性에 鑑하야 至急回答을 要求하엿스므로 佛國首相은 이미 스스로 곳 게가진 旣定方針에 基하야 內諾의 形式으로 去一日 佛國의 軍事的援助保障을 英國에 通知한것이다

獨은伊에紛爭에 嚴正中立을持續

英打診에히總統言明

【倫敦二日發聯合】英國政府는 伊에兩國關係에 압서 伯林駐箚大使 필립스氏를 通하야 時局에 對한 히틀러總統의 眞意를 打診시켯다 히틀러總統은 今回의 紛爭에 對하야 끗까지 嚴正中立을 維持하겟다는 旨를 確言하엿다고 解釋된다 히틀러總統의 確言內容이라고 傳하는바는 如左하다

一、植民地에 關해서는 獨逸政府는 伊太利政府와 競爭的立場에 잇스므로 今回의 紛爭에 當해서는 伊太利政府에 加擔하야 佛國領土를 [illegible] 絶對로 업다

一、또 現下의 情勢를 好機로

伊軍一萬五千 스에즈運河通過

【스에즈二日發聯合】伊太利運送船 사츠르니아、벨베리、음릴리아、나차리아의 四隻은 東阿出征部隊一萬五千을 실고 二日스에즈를 通過하야 一路紅海南東阿弗利加植民地로 向하엿다 사츠르니아號에는 出征部隊司令 벨가모公殿下가 將兵四千五百과 함께 同乘하야 埃及在留 伊太利人의 歡迎은 熱烈을 極하엿다

八面錄

◇ 滿軍은해도 態度은 아즉안을니나·차풀은 차풀이라도 눈만 놓기는格。

◇ 英國이 獨逸에 向하야 『戰爭이나는때 貴國은 엇더한態度를 取하겟는가』하고 質問。

◇ 答曰 『嚴正中立하겟다』고。이 對答을듯고 늑남지 안은 누구이며 安心할사람은 누구일가

◇ 『伊에紛爭』을 口實로 英佛兩國이 自己保護에 熱中하는것도 잇슴직한일。

◇ 『아도와敗戰以來』『切齒扼腕한』伊太利에 列强은 무엇을 주엇든가』

◇ 『只今에 [illegible]』云云은 伊太利의 [illegible]이라』고 뭇소리니首相이 大聲放發。

大衆的實用時計販賣
十個年保險付

◎時價二十餘圓品을 單六圓에!!
大量輸入大量販賣
商報進呈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오늘에 新民謠 압강물흘러 李銀波
OKeh

Columbia
新進歌姬佳作盤 人氣衝天!
울지안을래요
일허진첫사랑
(四〇六三七) 金玉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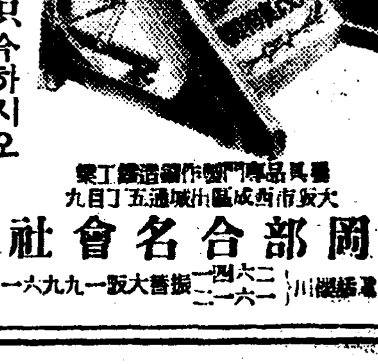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番

イカリソース
日本第一產額 日本第一品質
日本第一信用
日本第一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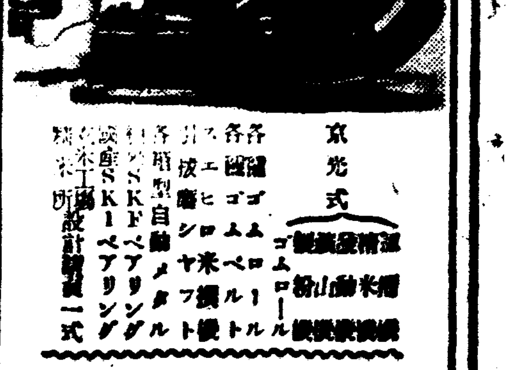
조흔家庭工業
最高의 會社의 意義잇는 大事業에 進出
第一 ... 株式會社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압흔痔에는 오세로 痔疾藥
¥0.30 ¥0.50
全國各藥店에잇소

好職業
稻扱機를愛用하라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 今年에稻扱機는!
今秋의準備는 只今하시오

岡部合名會社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品 醫療器械品 處方調劑 醫藥品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點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京光式
京光社營業所 李光淑鐵工所
主 李光賢

開業醫兩名筆頭로 男女十名을檢擧

赤色勞組中心人物과 連絡關係를追窮

西大門署高等係繼續活動

조선공산당 조직을 목표하고 서울안 각공장에 동맹파업을 이르키며 산업별 적색로동조합(産業別赤色勞働組合)을 조직하다가 서대문경찰서(西大門署)에 발각 체포되엿다가 작년사월에 탈주해버린 리재유(李載裕)는 그사건의종지도격의 인물이엿든만큼 그를 노처버린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다시업는 유한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를 체포할긔회를 노리고 잇든중 이번 특별경계의긔회를 타서 과연지난달 이십칠일 새벽부터 활동을개시하야 시내에서는 종로이정목에 잇는 인제의원(仁濟醫院) 의사 서광삼(徐光三)씨와 그의원 종업원 두명과 또 종로삼정목에 잇는 중앙의원(中央醫院) 의사 권태규(權泰圭)씨와 그의원 종업원세명을 검속하고 또 시외에서는 청량리(淸凉里)사는 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同德女高普) 출신 리효정(李孝貞)(二三)이라는 절믄녀자를 검속하고 또 이일밤에는시내 재동(齋洞) 청구려관(靑邱旅館)에 류숙중이든 시내장교정(長橋町)거주의 김승호(金勝浩)(二○)라는 청년과 강모(姜某)라는 어린아이를 두리나 더리고잇는절믄녀자를 시외 신당리(新堂里)방면에서 검속하여다노코 방금 그경찰서 고등계원이 총동원으로 취조를 하고잇는데 검속된 사람은 남녀열명이다

이와가티 련일활동하야 열명이나 검속하게된것은 다만특별경계를위한 예비검속이 아니오 시정기념식(施政記念式)과사단대항연습(師團對抗演習)의 시긔를리용하야 피신중의 리재유(李載裕)리관술(李觀述)리종희(李鍾熙)들이가 또어떤일을 꾸미고잇지나 안흔가하고 그것을 탐지코저 중앙에 전긔 인물들과 친분이잇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속하여다노코 리재유와의 련락관계를 다짐밧고 잇는모양이라한다

鐵道敷設以後로 犧牲者三千二百

鐵道公園에서 弔魂祭擧行

끔찍스러운文明禍

【京城】 조선의 철도가부설되기도 벌서삼십일년이다 이로말미아마 그동안에 쓰러진 생명이 금년중의 일백삼십일명까지 전부합하야 삼천이백십이명이라고 한다 금번 철도국에서는 오는사일오전열한시부터 룡산철도공원 제장(祭場)에서 그들의 초혼제를 거행한다는데 식전이 끗난후에는 동국우회(局友會)주최로 현종업원들의 운동경기와 자미잇는여예등을 개최한다고한다

新興鐵道에 脫線事故二件

【咸興】 지난이십구일 오후한시사십분 부전강수전(赴戰江水電) 제일발전소(第一發電所)에서 약구십『메돌』되는 지점에서『인크라인』에 철관을적재하고 끄으러올니든 도중에서 와이야『로ー프』가 절단되여 약십메돌이나 전락하엿는데 긔관수인 하긔천면진흥리(下岐川面眞興里) 김락수(金樂秀)(三三)는 약이주일이상을요할 중상을 입엇다고 일일 오전아홉시사십분 삼거역(三巨驛)을 발하여 하긔천역(下岐川驛)을 향하여오든 제이화물렬차가 동역시삼십분경 홍수(洪水)에 부근 보선(保線)공사현장에 다달엇을지음『레ー루』의전속점이 불완전하여 화차륙이 탈선한대로 약십여메돌이나 진행하엿다 는데 승무원에는 이상이업다고

人妻를誘引 內外싸홈利用

이일오후 열시경에 시내 종로(鍾路)오정목 이번지에 사는 전과자 최학긔(崔學基)(二?)를 유부녀 유괴혐의로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 형사가 체포하여다가 목하 엄중취조중인데 그는 시내종로(鍾路)륙정목 일백륙십팔번지 운전수 최재명(崔在明)의안해 김룡녀(金龍女)(二?)가 내외싸홈을하고 가정이 불화한것을 긔화로하야 전긔 김룡녀를 감언리설로 꾀여내여 한남동상에 연(漢上?)압 하치원(河致元)의 음식점에다 팔아먹은것이 판명되엿다한다

記錄的殘暑 颱風이頻頻

九月中의氣象槪況

구월이라고하면 소위 이백십일 이백이십일이 련해오고 태풍(颱風)의습격이 가장자즌때라 올에도 이달에는 맨처음부터 태풍이 남조선해안을 지처왓고 그다음에온 두번의태풍은 비록예상햇든것보다는 직접 조선에는 피해가 업섯스나 번번히 피해의우려에 위협을 밧고잇섯다 그바게 일반기상상태로 보면 비가만핫고 그강우량도 례년구월보다는 비교적적엇고 기온은 삼십삼사도에까지 달하야 례년보다는 매우 노팟다 그래서경성(京城) 평양(平壤)신의주(新義州)세곳에서는 지금까지의 구월의기온의 최고기록을 남기기까지햇다

土兵十二道溝襲擊

【咸興】 이일 함남경찰부에 도달한 대안정보에 의하면 지난 이십구일 오후여덟시 오십분경 계통이불명한 무장토병단 오십여명이 십이도구(十二道溝)시가지부근에 습래하야 동시가지에 일제발포를함으로 동지경찰대와 자위단이 즉시응원하야 약한시간동안의 격전끄테 토병단은 드듸여 시가지에 침입하지못하고 퇴각하엿다는데 차방에 피해는 아직 판명되지안엇스나 상당히 격심할것으로 추측되며 어남저내며 동구경찰서에서 토병유의자 일명을 검거한것을 탈퇴할 목적으로 습래한것이라는데 동지부근주민들은 공포에싸여 극히동요하고잇다

不審檢問을하자 進行列車서跳下

折脚이되여쓸어진것을取調하니

추렁크속엔生阿片

삼일오전여섯시사십오분에 경성역을떠나서 인천(仁川)으로 향하든렬차가 일곱시십분에 오류장역(梧柳莊驛)을 겨우지낫슬때에 렬차안의 이동경찰반은 거문가방을든 행동이수상한 승객 한사람을 발견하고 불심심문을 햇드니 그는 틈을보다가 그만 진행중인 렬차에서 뛰여나렷다 이동경찰반은 다음역에서 나려서 곳영등포서(永登浦署)에 전화로 보고하야 그서서원이 현장에 달려가드니 수상한사나히는 다리를상해가지고 철로길가에 잡바저서 움지기지도 못하고잇섯다고한다 곳이동경찰반의 손에넘겨서취조한결과는 함북길주군 덕산면도목동(咸北吉州郡德山面都目洞) 농업 리철암(李鐵岩)(二?)으로서 가방속에는 시가 팔백원어치 가량의 생아편이 잡북 드러잇섯는데 고향에서 그것을가지고 상경하야 인천어떤모상인에게 팔려고 가든길인것이 판명되엿다고한다

辯護士詐欺公判

底曳網許可運動을둘러싸고

一審無罪가覆審서有罪判決

사기(詐欺)및 횡령(橫領)피고사건으로 함흥(咸興)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의 판결을 밧고 검사의 공소로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든 함흥변호사한창달(韓昌達)(四?)씨는 삼일석(?)재판장으로부터 징역팔개월의 판결을 바덧다

그의범죄사실이라는것은 이러하다 그의친구로 변호사 홍성연(洪聖淵)이라는이가 저예망어업허가(底曳網漁業許可)를어더가지고어장을 경영하고 잇섯는데 재작년십이월에 사망하엿슴으로 자연히 그허가는 무효로되여버렷다 그래서 홍씨의 둘재아들 홍우균(洪禹均)이라는이가 자긔명의로 허가를 어들려고 운동을하게되야 그운동을 피고한창달변호사에게 의뢰하는동시에 성공하면 그사금(謝金)으로 오천원을 주기로 계약하엿다 그리하야 한창달변호사는 일즉이 함경남도경찰부장을 지낸서울 청엽정(靑葉町)사는 톡야핑(?)씨에게 의뢰하야 총독부에운동을한결과 작년이월 실효일에 드듸여 허가가 나왓는데 허가운동을 의뢰한 홍씨는 그뒤 돈이천원을 한창달변호사에게 가저다가 주고서 나머지는 탕감해 달라하엿든바 한창달변호사는 톡야씨에게 삼천원은 가저다주어야 된다고하고 또 천원은자긔의사금으로 달라고 위협을하엿다한다 그러나 그이천원가운데서 실상은톡야씨에게는 천원박게 가저다가 주지안햇스며 천원은자긔가 중간에서 먹어버렷고 또 그뒤에도 수차 독촉하야 홍씨로부터 천원의수형을 바더먹엇다는것으로 사기및횡령으로 기소되엿든것이라한다

物件실흔自轉車만 닥치는대로窃取

길거리에 두어둔 물건 시른 자전거만 닥치는 대로 훔처다가 팔아 먹은 절도가 이일밤 서대문경찰서에 붓잡혓다 범인은 시외신당리(新堂里)이백삼십륙번지 사는 전과 사범 김현규(金顯圭)(二?)로 그는 금년 사월에 징역을 치르고 나와서 지난달 이십구일부터 이일까지에 시내 각처에서 길거리에 세워둔 세탁주문의 세탁물 시른자전거 혹은 류성기등을 닥치는대로 훔처다가 팔아 먹고 혹은 잡혀먹은것이 이삼일동안에 전후십여건이라한다

輝發油에引火 少婦火傷重態

사흔날 오후한시사십분경 부내 무교정(武橋町)십구번지 김옥현(金玉鉉)의집에 식모로잇는 김명천(金明天)의 안해 리성녀(李姓女)(二?)가 그집주인들이모다 외출한사이에 회로에 휘발유를 노코 그우에다 대여를 논후 헌양복을 삶으려고하다가 휘발유통이 어퍼지면서 회로불에 인화되는동시 불길이 치마짜락에 옴겨부터 가슴이하로발끗까지 오부털른 피부전체가깜아케타도록 중상을 입고 길거리로 뛰여나와「사람살리라」고 고함치는것을 통행하든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의전병원으로 입원을 시켯는데 방금생명이위독하다한다

爽秋의大運動會 (今日專賣局運動會所見)

窃盜못한陰嫌 放火로復讐

犯人은檢事局送致

【咸興】 강원도 울진군 평포면 삼률리(蔚珍郡平浦面三栗里)에사는 백남이(白南伊)(二?)는 이일 방화절도(放火竊盜)죄로 함흥법원검사국에 송국되엿는데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팔월팔일밤 동리 우경룡(禹景龍)의 소유감자밧헤 들어가서 감자두개를 절취하려다가 주인에게 발견되여 욕을 먹은후에 항상그것을 분히녀여 그집에 방화하여 복수할것을 계획하고 긔회를엿보고 잇든중 구월삼일오후열시경 우경룡의집에 불을 질럿스나 다행히 집사람에게 발견되여 뜻을이루지못하고 다시 그후오일 오전세시경 그집변소간에 불을노아서 동가집동전체를 태워버리고 또십일오후열시경 동리김창수(金昌洙)의 집 밤나무에서 밤세개를 도적질하다가 발각되고서 창피를 당한이후 그복수로 십삼일오전 두시경그집에불을 질러서 집동을전소식혓다는것이다

朝鮮共靑事件 明四日續行公判

—咸興地方法院에서—

조선공산청년동맹사건의 제이회속행공판은 사일 오전아홉시반에 함흥(咸興)지방법원에서개정하기로 되엿다 지난달이십칠일 첫공판때에 오기섭(吳琪燮)을 마즈막으로 전부일곱명을심리하엿는데 그때에 오기섭은예심결정서에 기재되여잇는 조선공산청년회에서 보내엿다는 조선공산운동에 대한『정월테제』란는것은 전연사실무근한 일이오 실상은『공개서한』(公開書翰)이엿스며 그소위 운동방침이라고 기재되여잇는 여덜가지조항도 아주조선의실정에적합하지안흔것이라고지적하야 예심결정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릇된것이라고 강경히 주장하고 재판장이 그예심결정서를 토대로 삼아서 피고들을 심리하는것은 재판장이 변증법(辨證法)을 몰르는 탓이라고 항변까지하야 장시간 힐난한일까지 잇섯스므로 오늘의 속행공판에도 류종운(柳?運)이하 피고들이 상당히 말성을 이르키게 될것으로 추측되다

一朝有事時期에 車馬徵發을協定

軍部와總督府間에實施細則을協定發表

調査準備를徹底化

일단유사한때에 륙군에서 민간으로부터 차마를 징발할 소위징발사무에 관하여는 그간총독부에서 조선군사령부와 협의중이든바 최근에 협정이 끗나총독부에서는 사일부로 조선징발사무세측이라는것이 훈령(訓令)의 형식으로 도부군도(島)와 각경찰서에 발령하엿다한다 이세측은 마필(馬匹)의 징발과 자동차의 징발의 두종류로 나노여 각기징발준비와 실시또대부한 예비마(豫備馬)의 방출준비와 실시등에관한 극히 자세한것으로 이세측은명년도부터 동원과징발계획에실시할터이라한다 이징발사무에 관한 총독부와 군사령부의 협정은 조선군의개편정비와 조선내의 군수공업의확립과 아울러 군사동원을 할때에 자동차와 마필의징발을 민만하게 할수잇게 평시에 조사와준비를하야 정도하여 두는군사상의 중요사무로 행정관청의절대적 협력이 필요한 관계로그구체적 협정을 보게된것이라한다

大陸고무女工 大部分은就業

임금감하로 말미암아 녀직공일백이십일명이 지난일일 오후부터 일제히 동맹파업을 이르켯든 시내중림동(中林洞)대륙고무공장 동맹파업사건은 파업을이르킨지 사흘만에 상오부터는 직공의 대부분이 공장측에서 감하한 임금에그냥 굴복하고 취업하엿다한다

總督府東京出張所落成

총독부에서는 동경시 지구전촌정일정목삼번지(芝區田村町一丁目三番地)에 총독부의 사무소를 작년팔월에 긔공하야 철도국공제조합의손으로 건축중이든바 최근에 준공되야 지난일일에총독부 동경출장소는 새청사로이전을하엿는데 이사무소는 철근콩크리트 사층건물로 총공비삼십팔만원이 드럿다한다

運動競技

神競蹴球 十九團體參加

來八日부터 十四日까지 京城運動場에서 行할 朝鮮神宮奉贊式蹴球에는 中學部九個校、專門校部五個校、一般部五個團으로 總數十九團體에 達하는바 그 對戰은 다음과가티 抽籤決定 하엿다한다 이번東京서 열리는 明治神宮蹴球에는 京城、平壤、普專、延專、崇專等에서「피인」하야 朝鮮代表를 派遣하기로되엿다한다

【一般部】 平壤蹴球 全馬山 漁大津 [illegible]天 京城蹴球

【專門部】 城大豫科 [illegible] 普成專門 大邱醫專 京城醫專

【中等部】 鏡城農業 平壤高普 崇仁商業 普成高普 培材高普 第一高普 大邱高普 海州高普 第二高普

日程과時間配定

◇十月八日 午後二時(普成對培材)、午後四時(大豫對醫專)

◇同十一日 午前八時(鏡農對平高)、午前十時(一高對啓聖)、正午(海高對二高)、午後二時(大豫…)

◇同十二日 午前八時(崇商對平高…鏡農의勝者)、午前十時(一高…啓聖의勝者對海高…二高의勝者)、正午(京醫對大醫)、午後四時(漁大津對平蹴…馬山의勝者)

◇同十三日 午後四時(普成…培材의勝者對崇商…鏡農、平高의勝者)

◇同十四日 午前八時(中等決勝)、午前十時(專門決勝)、正午(一般決勝)

徐廷權君入京

東洋拳闘會서指導

世界的拳闘家徐廷權君(東洋拳闘會師範)은 東京서手術한脚部傷處를治療하기위하야 鄕里順天에 歸省中이든바 完治되여 今三日午前七時二十四分 京城驛着 列車로 入京하엿다 徐君은黃金町六丁目十八의三八號에잇는 姉兄黃乙秀氏房에 留宿하면서 今夜부터 東洋拳闘會道場에서 同部員들을 指導할터이라한다

世界野球爭覇初日

시카고·캅스勝

三對零타이거스敗

【데트로이드三日發聯合】 世界野球爭覇戰 第一日은데트로이드·네ー뷔·필드에서 三日午後一時半부터『데트로이드·타이거스』對『시카고·갑스』戰이 열렷는바 好天의 野球날시에 觀衆은 場內에 넘치는 盛況이엿다『타이거스』는 好調의 長身左腕投手『스쿨보이·로ー』를 投手板에 보내고『캅스』는 右腕投手『와ー네이스』를 投手板에세우니『네이스』投手猛威를 發揮하야『타이거스』의 猛打者에게許한安打겨우四本이란 리ー그開始以來의大記錄으로『타이거스』를 壓倒하야 結局三對零으로『캅스』先勝하엿다

캅	200000001	3
타	000000000	0

天氣豫報 曇一時晴

七五二『미리』의 低氣壓은 日本海中部로부터 滿洲中部에잇고 七六一『미리』의 高氣壓은 揚子江流域에서 朝鮮으로떠저서 日本內地는 氣壓이놉고 그配置는不安定하다 滿洲、朝鮮과日本內地는 모다大槪흐리고 곳곳에 小雨가잇다

昨日最高 二一·六 同最低 一○·[illegible] 今日正午 九五九

偉動! 天下待望·朝鮮最初의發聲映畵化의出現!!

春香傳

朝鮮폰 全發聲

監督 李銘牛 撮影 金蘇峰 李明雨 錄音 李弼雨 中川曉史

主題歌 作詞 金八蓮 作曲 洪蘭坡 빅타專屬歌手 金福姬

…出演… 朴齊行 韓一松 崔雲峰 林雲鶴 李鍾哲 文藝峰 盧載信 金蓮實 金英淑

製作者의決然한 奮鬪는보기에도 悲壯! 內容의多彩表現의活還은 完全相合하야 雋味全卷에 滲潤하엿스며 妙趣또한 當代를 席捲하리니 況且浩瀚한 大作品으로서의『春香傳』의 發聲化는또한 朝鮮映畵의 祖宗일것을確信한다

特別料金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午後七時

四日封切

파라마운트超大作日本版 요셉·폰·스탄빡監督 마레네·띄돌히主演 라이오넬아드릴 세살로메오 助演

스탄빡、띄돌히名컴비의製作한最高의藝術作品!! 리스키ー코르사꼬프名曲을타고、豪華롭게展開되는西班牙狂想曲!

西班牙狂想曲

團成社

第一劇場 十月四日부터三日間特別興行 每日三回興行 正午十二時 三時半 七時半 大衆料金 階上席 二十五錢 階下席 十錢均一 特選映畵一時公開!! 新興키네마太泰特作品 現代劇 涙の世渡り 原作 佐藤八紀氏 監督 東方城泰氏 主演 中野英治 佐藤...氏 ... 人生混合曲 파라마운트社超特作映畵 宗敎劇 暴君네로ー 全卷 名花 그레데...주연 電話光二五五番

團成社 十月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特別料金—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 監督撮影 李明雨 錄音 李弼雨、中川曉史 春香傳 文藝峰、韓一松、朴齊行、林雲鶴、崔雲峰、李鍾哲、金蓮實、盧載信、金英淑 共演 ◇파라마운트超特作日本版 요셉폰스탄빡監督撮影 마르레네、띄드릭히主演 西班牙狂想曲 ◇東京日日、大阪每日世界뉴스 時報 ◇파社特作漫畵 三篇 —(次週公開)— 處女湖 玄明符、復活、麥秋、白蘭、말조흔仙女、黃昏의원나、짝다슨公主、十字軍 全鮮第一映畵殿堂 電話二一九○

十月三日より大公開 突如!!全世界注視的風雲急を告ぐ 懷火口上に有るエ伊紛爭近況ニュース第一報來る!! 加ふるに絢爛豪華松竹傑作ニ大巨篇の併立大封切!! —上映順— 一、松竹發聲ニュース 二、下加茂特作サウンド版 △文化の母 原作脚色 柳川眞一 監督 大曾根會天 主演 高田浩吉、光ツ京子 △男の唄やくざの掟 微妙な男同志の友情の綾を描く新人大曾根監督が満満たる自信作!! △エ伊紛爭ニュース 正に青天の霹靂!! 全ヨーロッパを震駭し再び世界大戰? 黑色人種として満場の氣を吐くエチオピア國民の悲壯なる決心を見よ!! 我が國民として絕對に見逃し得ぬ映畵!! 蒲田超大作オールトーキー △雙心臟 原作…故牧逸馬 脚色…猪俣勝人 監督…清水宏 主演…川崎弘子、高杉早苗、上原謙、近衛敏明 文壇の逸才牧逸の絕筆!! 氏が死の直前まで執筆せる問題の傑作名匠清水監督の巧妙を極めたメガフォンによる近代色濃き靑春多難篇 洋劇專門 浪花館

天下人氣獨占한二大雄篇一時上映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WS반다이크氏大作品! 類猿人타ー산 九月二十九日부터 飛翔王존니와이스미유라氏主演 妖花모린오사리반孃 M、G、M超大作全發聲日本版 巨匠새도릭그기본스氏大作 類猿人타ー산의復讐 주연 조니와이스뮬라 모린오사리반 닐하밀톤氏助演 古今獨步!天下人氣獨占하여 歷史上에記錄될二大雄篇을 一時上映! 이絕好한時期를일치마시라 帝國敎育映畵硏究所製作 全發聲 東鄕元帥 海軍省後援 監修海軍中佐 豫告十月三日부터 朝鮮到界猛虎軍의活劇洋劇專門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어찌하리까?

양제봉을배워두면
장래유망하겟소?

問 저는 금년 이십세되는 처녀입니다. 금년에 모녀자고보를 졸업하엿스나 본래 학교에단일때부터 가장 취미에맛고 또한 리상적이라고생각한것은 양제봉이엇습니다. 그럼으로 그방면으로 나아가 좀 더깁히 연구를 해보려고 동경가튼데로 유학을 갈가하엿더니마는 집안에서는 말하기를 녀자가 중학교나 맛첫스면 그만이지 더공부를 하면 무엇하느냐고 못가게하고 또한 일본을가서 더배호드래도 녀자가 직업이 다무엇이냐고 그저 모든것을 다집어치우고 속히결혼이나 하여서 가정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동경간다는것은 절대로 말립니다.

그러나 저 생각에는 본래부터 취미에 맛는것이니만큼 동경가튼데라도 가서 좀더 공부를하고십흐나 현재조선에잇서서도 부인복이나 아동복가튼 양제봉을 배워가지고 온다면 그것으로써 생활해나갈수가 잇스리만치 유망할는지요? 이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만 모든것을 다 버리고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을할까요? 그럿치안흐면내뜻대로 동경으로가서 양제봉을 연구해가지고와서 어데서직업을할는지 따로독립해서 양재봉업을 경영하던지 할까요? 이두가지중에서 어느것을 골른는것이 조켓습니까? 속히하교하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平壤一讀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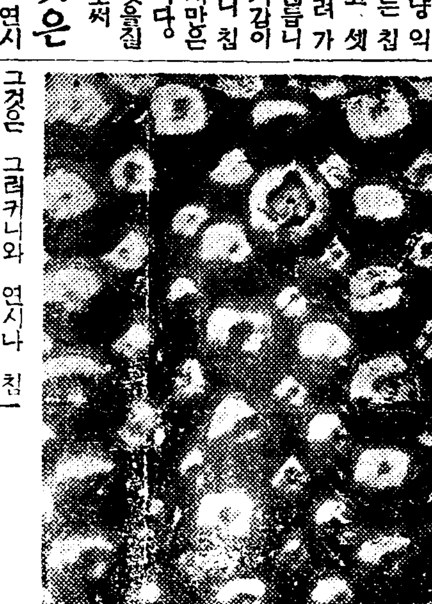
학자만넉넉하거든
공부해보십시요

答 녀자라고해서 반드시중학교만 졸업하엿스니 더 시는 더공부하지말라는 법은 업습니다. 그럼으로 원측상으로보면 당신이 중학을 맛치위에 양재봉에대한 취미나 천분이잇다면 그것을 더공부하는것은 매우조흔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녀자로서 공부를 한다는데에는 그다지 단순하지못한 여러가지 조건이 잇습니다. 첫재 동경가튼데가서 공부를 하자면 녀자로서는 학비에대해서 아모걱정업서야하겟습니다. 만약 당신집이 가세가 넉넉지못해서 학비를 잘변통할수업는 처지이라면차라리 공부를 단념하는것이조켓습니다. 그리고 양재봉이란 그다지 딴데의 길이 너른다고할수는 업스나 지금도 양재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잇고 또한 사회의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따라 이때까지는 귀하엿다고 하드래도 양재봉가튼것도 장래가 유망하리라고 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처럼편이 학비에 곤란이업고 또한당신이 이것을 배워서 자주적인 독립생활을 할만한 구든의지가 잇거든 더공부하는것이 조켓습니다. (一記者)

『비타민』이다무엇
감에는 전멸상태
그러나빗과맛이고으는 무서운매력
여전히가을실과의주인공

감에잇는『탄닌酸』

요사이 과실시가게를 지나자면 이목판 저목판에 벌리어 노흔 연시와 침시가 참으로 먹음직하야 보입니다. 감이란 실과로서 내로라고 제법행세 스것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먹음직스러운 볼품으로서야 천하의 일품입니다. 본래 감에는 함수탄소라는 영양분이 거의 십분의 삼이나 넘어되도록 만흐며 담백질과 지방도 극히 적으나마 업지를 안습니다. 그런 성분을 보아서라도 감을 푸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되얍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에는 불행히도 비타민 에이、뻬、씨가하나도 업슬 뿐이 아니라 탄닌산이라는 것이 다량으로 들어 잇습니다. 감에서 떨븐맛이 나는것이라든지 감물이 잘 빠지지 안는 것이라든지 모도 다 그 탄닌산의 관계인데 그것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동시 변비가 되기 쉬웁습니다. 먹음즉하다고 감을 과히 먹어서는 재미가 적습니다. 더구나 어린 아기들에게는 더 한층 주의하서야 합니다.



볼수는 업지를 안습니다.

감초 석어 물클어진 감을꼭지 떼고 물에 씻어 항아리ㅅ속에 너허 둡니다. 한 이주일 지나면 탄산까스가 발생하기시작하야 부걱부걱 괴오르고 또 얼마 지나면 도로 줄어 듭니다. 그러케

한달쯤두엇다가

는 국물만 딸아서 베나 가는체로 걸러서 딴병에 너허 둡니다 그러케 또 한달쯤 두어 다시 한번 괘게 한뒤 먹습니다.

감녕 감을 발려서 체로 처가지고 초청에 타서 엿을 맨듭니다.

감저림 땡감을 재강에 저리어 맨듭니다.

감과자。건시를 씨바르고 쪽펴서 반듯반듯하게 잘려가지고

조선서는 감을 세가지로 맨들어 먹습니다. 첫재는 그냥 익히어 연시로 맨들고 둘재는 침을 담거서 침시로 맨들고 셋재는 껍질을 벗기어서 말려 가지고 건시 즉 곳감을 맨듭니다. 그런데 연시감과 침시감이 갈려 잇서서 연시가 나흐니 침시가 나흐니 서로 다토지만은 그야 다각각 맛이 다릅니다. 자긔 식성에 따라 조흔것을집길망정 곳자긔의 식성으로써

편여울지을맛은

조금도 업습니다. 물론 연시는 씨를 발르기 거북 하고 껍질에 부튼 살을 빨아 먹기어려운 것이 험이로되 전라도에서 나는 수시(水柿)는 껍질이 얇고 씨가 업는까닭에 한번 빨아서 빈 껍질만 남는답니다. 이수시를먹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연시의 맛을 이약이하기 어렵습니다. 또 침시는 다소 떫떫하야

뒷ㅅ맛이깔금하

지못한것이 험이로되 요사이는 술로도 침을담그고 탄산까스로도 침을담그게되야 여러가지의 침이 잇습니다. 이런 침시 저런 침시를 골고로 먹어보지 안코서는 침시도 이약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러커니와 연시나 침시보담도 감을 조하 하시는분이 게시답니다. 그러분네는소금을 찌어서 ᄭᅢ에 너흔 뒤 입술을 꽉 다물고 씹어 먹으면 땡삽 맛이 아조 훌륭하다고떠듭니다.

단지 조선서는 건시를담거서

수정과를맨들

뿐이지 그이외 감을가지고 다른 료리를 맨들줄은 전혀아지 못 합니다.

물론 감은 밤이나 대추와달러서 이런 료리 저런 료리에 만히 쓰이지는 못 하겟지만 그래도 몟가지의 료리를 맨들어 잣 호도 락회생등속의 양을 싸서 맨듭니다.

계란을바르면
살결이고와저

계란이 미용에 조타는것은최근 일반이 다잘아는바이나 위선 계란으로 머리를 감으면아주조습니다 머리감을때 두어개 풀러서감으면 부드럽고 윤택하고 빠지지도안코 백발이되지안는다는것입니다

얼골에 바를때는 계란한개를 흰자와 노란자를 한대잘석거서 거기에다가 흑설탕을 석고 쑥세미오이물을 석근것을 목욕이나세수하기전 얼골에 발라서 말은후 씻습니다다음콜드크림을 바르고자는것인데 이럿케 일개월동안만 계속하면 떤사람갓치 살결이곱고 주름살도 지지안코 히어집니다.

더욱 간단히 할려면 반찬만들때 쓰고버리는 계란껍질에남은 흰자를 얼골에 바르고 마찰을한후 씻고 화장을해도 효과가잇습니다.

世界文藝童話集

어머니

(丁抹 한스·안더ー슨作) ④ 崔秉和譯

어머니는 그할머니에게 끌리여서 커다란『죽엄』의진속으로 드러갓습니다. 그속에는 놀납만치 만흔꽃과나무가 합부로 벌려저잇섯습니다. 종형상을한 유리분미테는 조고마한꽃이 몃떨기 잇섯습니다. 그중에 몃은이제 갓피여서 생생하고 어느것은 약간 시드러가는것도 잇섯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물배암이 감겨잇고 줄거리에는 게들이 붙어잇습니다.

또 그곳에는 화려한 종려나무와 떡갈나무 화란미다리 그박게 꽃이피여잇는『다임』이라는 향기나는 풀들이 무성하게 잇습니다. 그러한 나무와꽃에는 하나하나 일홈이부러잇습니다.

그것이 모다 사람의평생입니다. 그것을 제갓기마튼 사람들은 모다살어잇서서 이세상모든땅에 흐터저 잇습니다.

그밧게 몃개인지알수업는 적은 항아리속에 커다란 나무가 한목픔 잔득드러박혀 잇습니다. 항아리가 깨여질듯하엿습니다다 곳에는 작은 약하디약한 꽃이 수업시 기름진땅에 심어젓고 네에는 잇기가잇서서 소중하게 길리우고 잇습니다.

눈이안보이는 어머니는 모다 작은 나무와 작은꽃의 하나하나우에가 업드려서 그속에서맥이뛰고잇는 마음의 울림을 드르며 도라다니엿습니다 그리고 몃만이지 수효만흔중에서 그여히 자기아들의『평생』의 나무를 차저냇습니다.

『아!이것이다』하고 어머니는 부르지즈면서 어느적은 꽃우에 두손을 펼것습니다. 그곳은 다 서드러저가고 쎄와러케 질렀습니다.

『그곳을마처서는 안되오. 그래지말고 이곳에안저서 기다리시구료. 이제 『죽엄』은 곳 도라올터이니. 『죽엄』이 도라오거던 이꼿만은 뽑지안케하시요. 그꼿을뽑으면 다른꼿을 위롭 뽑아논다고 놀니어주서요. 그러케말하면 깜작놀라서 뽑지안켓소.』

『죽엄』은 이곳에 잇는 꼿나무는 하나님에게 외롭 이야기하야 할수라는 허락이 나올때까지 한나무라도 뽑을수는 업스니깐」할머니는 이러케 말하얏습니다. 그러자 별안간 어름과가튼 찬바람이 휙! 집속으로 불어드러왓습니다. 눈이업는 어머니는『죽엄』이 도라온것이라고 깨달엇습니다.

『어더케 길을알엇소? 어더케 나 보다도 먼저 나시엇소』하고『죽엄』이 무럿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머니. 이니간요.』

『죽엄』은 긴손을 빼스어서 어머니가 간신히 차저낸 작은꼿을 마치나고 하엿습니다. 어머니는 얼시귀하니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두손으로 단단히가리고 꼿을떰엇습니다.

그러자『죽엄』은 어머니 손에다 어름입김을 바람보다도더 차고 추운 입김을 뿜엇습니다 어머니손은 저리고 제절로 속으러젓습니다.

『암만 고집을 부려도 나에게는 당하지못하지』하고 『죽엄』이말하얏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엇더케든지 할수가잇지요』하고 어머니가 대답하엿습니다.

家庭醫學

습진

問 이십오세된 남자인데 사년전부터 우연히 전신이 가지럽고 혹머리에 기름을바르면 머리엽끝 목가튼데가 몹시 가지럽고 좁쌀가튼것이 소사올습니다 종종 머리는섯가튼것이 빠집니다 이에대한치료법을 하교하여주시요 (浦項 金鶴生)

答 습진인듯합니다 습진은 그종류와 정도에따라서 쓰는약이각각달으니가 진찰하지아니하고일반적으로 말삼할수업습니다만은 다음과가튼약은 무난할듯합니다

一、亞鉛華 一〇〇
(鹿部藥劑所)
一、亞鉛華 一〇〇
澱粉 一〇〇
硼酸 一〇〇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얼굴에부스럼이나오

問 금년스물두살된 청년인데 겨울이되면 얼굴에 부스럼이나며 얼굴이 붓습니다 추운때는 단기면 더욱심합니다 무슨병입니까요 처방을 가르처주십시요 (답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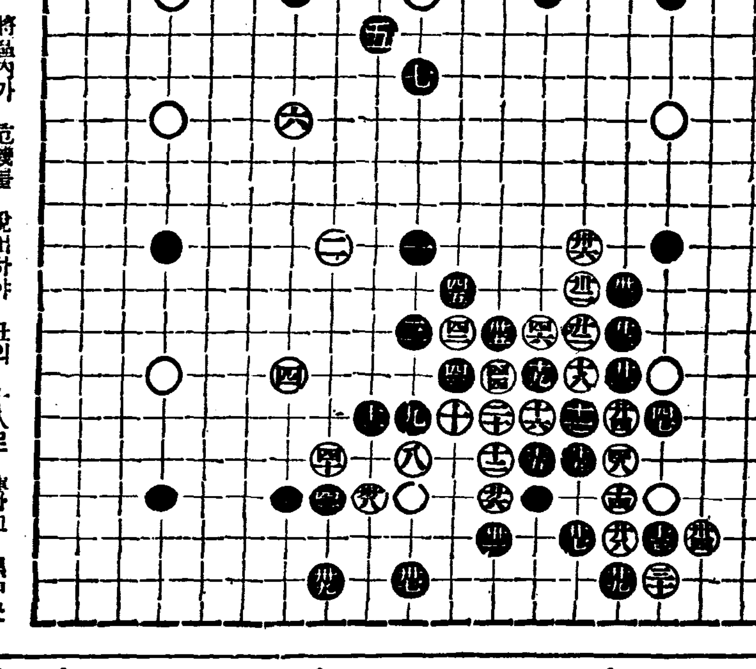
答 얼굴에 부스럼이 나고추울때에 붓는다고만 말해서는 무슨병인지 알기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피부병은 보기전에는 단을 나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순한 부스럼이라고한다면『메라펜』이란약으로 주사를 마저보시요 얼굴이붓는것은 여러가지 병으로 붓수잇는 증세인고로단순하게 치료를 말삼하기어렵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榮來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3=

白 丁奎春
黑先 權五慶 當局 秀才

【●三三】戊의十二
【○三四】丙의十七
【●三五】辛의十三
【○三六】己의十
【●三七】癸의十八
【○三八】子의十六
【●三九】丑의十八
【○四〇】丑의十五
【●四一】丑의十六
【○四二】壬의十三
【●四三】壬의十五
【○四四】辛의十五
【●四五】壬의十一
【○四六】庚의十三
【●四七】丁의十四
【○四八】戊의十五



◆蔡極文氏評 黑庚의十六 將區內가 危機를 脫出하야 丑의 十八로 連하고 黑中央가 一時에 雲捲靑天이라 本營이 幾至成樣하고 丁의 十四로 白一點을 斷하니 黑二處不擬狀態 自取得하니 手腕이 果非尋常이로다 白은 黑包圍策을 一失하고 中央連絡을 强 雖有少憾이나 隨機進展은 亦自無妨일뿐

十月四日 (金)
●陰九月八日(小) ●宜祭祀·移徙·裁衣·納財 癸丑·木·壁·定

三 日 (木曜)

◇午後六時 라디오世界一週旅行(一) 滿洲國으로부터시베리아 中央高普 崔鳳鉉
◇同六時二五分 歷史講座 江華島事件 金道泰
◇同七時三〇分 始政二十五週年記念講演(第四日) 中樞院參議 張憲植 商業銀行頭取 朴榮喆
◇八時〇〇分 맨돌린合奏 一、차르다스(匈牙利舞曲)마츠키作曲 二、古典的組曲…알브로즈스作曲 1、前奏曲 2、메누엣트 3、사라반다 4、가보트 5、파-지네라 三、1、계수나무(桂)나래…마넨데作曲 2、알밤의한장… 指揮 山野上敎夫 城大 맨돌린部
◇八時三〇分 古談 金鳳九
◇九時〇〇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小春香歌 四、平壤歌 五、노래가락 唱 朴竹葉 李竹葉

四 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花草四百里外 一、花草四百里 二、報念三千六字碑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高桂仙 高飛燕
◇同三時一五分 文藝講話 探偵小說과『포』 金東仁
◇同六時 ―童話劇과童謠獨唱― 一、童話劇(郵便變作) 마음의眼鏡 全二景 二、童謠獨唱 두루미會 伴奏 金復齡 指揮 金相德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候鳥이야기』 趙福成
◇同七時三〇分 始政二十五週年記念講演(第五日) 京畿道産業部長 尹泰彬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東)피아노獨奏 一、奏鳴曲 E長調 作品一〇九番의三〇…베-토벤作曲 第一樂章 베빠체 마…논…트롭프…아다지오…에스프레시보 第三樂章 안단테、몰토칸타빌레…에…에스프레시보 五빠리에손 二、圓舞曲R短調 …쇼팡作曲 荒木和子
◇同八時二〇分 테너獨唱 一、歌劇『도스카』中에서 異常한調和…푸치니作曲 二、줌…욧시니作曲 三、도라오다、소렌토로…쿠르티스作曲 四、바다로…오라…베듸-네作曲 五、歌劇『아르르의女子』中에서…치레아作曲 페데리코의嘆息 金永吉
◇同八時五〇分 管絃樂、레코드演奏
◇同九時〇〇分 低音獨唱 스미스 피아노伴奏

五 日 (土曜)

◇午前一時二〇分(東)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ー그戰
◇午後六時 洋樂 一、빠이올린獨奏…鄭樂錫 二、피아노獨奏…朴敏鍾 三、피아노트리오…尹琦善 四、獨唱…美浦三郎 第一高普音樂部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朝鮮天主敎百五十週年祭를當하야 天主敎神父 吳基元
◇同七時三〇分 始政二十五週年記念講演(第六日) 國民協會理事長 金明濬
◇同八時 流行歌 一、合唱 希望의종소리 二、獨唱 臨江千里…戚德民 三、獨唱 님이그리워…金鮮英 四、獨唱 春草夢…金仙草 五、獨唱 幾月…黃金嶺 六、獨唱 모래내싸노코…戚德民 七、合唱 서울行進曲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古談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金昌龍 李花中仙 鼓手 韓成俊

長篇小說
女子의마음 (11)
張德祚 作
安夕影 畵

갑자기 옥이의 외상술먹다는 절은사람이그를 다리러 나려왓슬때는 향회의 집뒤이왕산비탈에도 무성해진 아카시아가 꼬출 맺고잇섯다.

전날의 과음(過飮)으로 배탈이나서 누엇든 사내는 놀난듯이 향회를 처다보앗스나 마음속에는 벌서 그의 조처를 짐작한 모양이엇다

『먼길에 수고하섯소』향회는사내의·말에는 대답지안코 편지를받자 즉시와주든한이김손을접대하며 오랜동안의 고민에서당장 해방되는듯한 안심을 느끼엇다.

『빨리 옥이를 내여 보내야할텐데』이것은 어느때이나 잇시도 머리를 떠나지안는 생각이엇건만 그방법은 용이히 발견되지못하엿다.

그것은 비록 내여보낸후 일지라도 게집애의 장내에 대한 일도 념녀하지안흐면 안되는것과 자식을 보기만하면 팔아먹으려고 별으고잇다는 그부모에게대한 조처까닭이엇다.

그러든것이 우연한일노 귀결이낫다.

그것은 향회가 간단한 외출에서돌아오니 그동안에 사내가 게집애를 안아 보앗다는것이엇다.

어떤 정도로 어떠케된 게제에 이런일이 생겻는지는 모르나 그것을 목격하엿다는 엽집 쌍동어미말로는『천하에도해괴』한일이엇드라한다

향회는 곳 옥의시골에 차비를 보내고 반건달로 돌아댕긴다는 그 삼촌을 불너 올녓든 것이다.

『모든것이 댁의 은혜올시다』하며 엽눈질을 슬슬하는 그사나희의 모양에는 돈그리운 태도가 력력히 들어나 잇섯다.

『시골은 지금야단입니다. 서울의 일원이 백원폭은 가니까요』향회는 그모양에서 벌서 잇해째나 생사조차 몰을 오래비를 생각하엿다.

그도 돈을 조와하든사람이엇다. 넘우 지나치게조와함으로몸을망치고 뉘의 일생까지 비참하게 하고 말지안핫든가

향회는 웃가지며 반지나부랭이가튼것을 되도록은 만히 차자내여 짐속에 너허주엇다.

그럴때마다 그사나희는 일부러 감탄한듯이『헤ー』하고 놀란표정을 지어보이는것이 모다 몰패하엿다.

『아즈머님 한번만 더 놀녀봐주십시요』

입때까지 부억구석에서 눈물만 씻고잇든게집애는 짐이모다 꾸려지고 떠날준비가 다된후에도 향회의압헤업데여 벌엇다.

사나희의 참되정열에 점점 눈이띄여오는그의 부드러운 가슴속에는 무심한 누명을쓰고 쫏겨간다는 생각이 무거운 잠돌과갓치 나려눌으로 잇섯다.

『아즈머님은 어떠케 생각하시지마는 제몸은 아즉 깨끗한니다. 나으리와 그런 그런……』

향회는 눈압헤업데여우는 옥의 가련한몸을 살펴보며 매를 해노코 문초하든 몃달전의 자기를 생각하엿다.

그는 그와 전후하여 사내에게서도『옥이귀여워 죽겟다』는 참회비슷한 사죄를 들은일이잇섯슴으로 게집애에게대한 문초는 일종 심하엿든것이다.

『다 말해라 숨기지말고 옹』

향회는 흥분된 얼골로 게집애를 나물햇스나 옥은 업데여 그저울뿐이엇다.

『글세 넘우 심하지안하? 너도 좀 생각을해봐라』

하면서 향회는 이러케되도록 내버려두엇든 자기가 등한한것갓하서 후회스러웟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얼마간 냉담해젓든 사내의마음은리별을 압두고 다시 열렬히 게집에에게 쏠니엇다.

『꼭돌아와 다시돌아와 옹』

한번가면 그마일술은 번연히알고 잇스면서 사내는 이러케당부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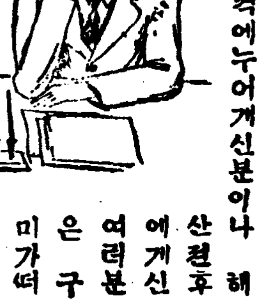
『과히 괴로운일이잇거든 편지하고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기하고』하는 사내의 눈에는눈물까지 핑 돌고 잇섯다

향회는 이러쿳 애끗든 정열을 가젓든사내의 마음을 드려다보며 후 쌍동네의 말이 사실이라하드래도 단순히 그의 소행을 미워할수만은 업슬것갓햇다

『너도 불상한년이다』 방자한 두사람의회생이되여 절망의 구렁으로 끌녀가는 게집애에게대한연민(憐憫)의정이 향회의 가슴에 퍼젓다.

胃腸을튼튼하게하자

첫가을에는胃腸病으로부터病이始作된다 그러므로 입맛을돗아주고胃腸을튼튼히하여주는「에비오스錠」을服用하시는것이 健康의첫길입니다。



지리한더위가지나고 가을바람이부러오는요새에는 허약하신분이나 병석에누어게신분이나 해산전후에게신 여러분은 구미가떠러저서 음식을 잘잡숫지못하게되며 배속도 늘 거북하고 頭痛이나며 便通도 조치못하여져서 늘 氣分도 납블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첫가을에도는활염병에걸니기쉬웁고 病勢는 매옥심하게되며 아무런조흔약을써도 잘낫지안어서 더욱苦痛을주게되며 해산전후에게신분은 모의건강과 태아의발육이 조치못하게됩니다。 그것은 사람몸에 가장 귀중한榮養素인「비다민비」가 不足되여잇는까닭으로그런것이니 무슨 보양켜보다도 먼저「비다민비」의진국인麥酒酵母劑「에비오스錠」을連服하시는것이 健康의첫길임니다。

근본적으로 곳처준다

慢性胃腸病으로고통밧으시는분이나 병석에누어게신이들은 배속이거북하고 변통이조치못하다고 흔이 胃散이나健胃劑 혹은下劑를상용하시나 이것은 약먹을때만듯고 차차 量을만히먹어야되며 인이백이고 그럭치안어도 몸약 산약등으로 몹시도衰弱되여잇는胃腸에 더욱 자극을주어서 病勢는점점惡化하여지며 또한 몸은 더욱 쇠약하여저갈것입니다。 그럼으로 반듯이胃腸의운동을 다시금 回復식혀주며 입맛을 돗아주고 먹은것이 속히 소화가되며 모도 영양화식히는「에비오스錠」을連服하시면 속히배가 곱하저서 飮食을 잘 잡숫게되여 모도 피와살로가게됩니다。

보통 음식물을
모도 영양화식혀줌

귀여운보배ー아드님 따님의 발육이조치못하고아모리조흔음식물을먹여도잘살로안가는 쎄는그 부모의 걱정은 무엇보다도큰근심일것입니다 「밥투정」「반찬투정」을하면서도잘먹지안는 어린애들은반듯이 밥맛을업게하는원인이잇서서그런것이니 이때에는일반영양학계서나 전문의사계에서 놀추천을밧고잇는「비다민비」의진국인麥酒酵母劑「에비오스錠」을먹이시면 밥도잘먹고먹은것이모다살로가며 병에대한저항력이강하여저서몸도튼튼해짐니다 그것은「에비오스錠」의주요성분인「비다민에이·비·씨·디·이」와「갈쉬움」「크리코ー겐」이외 二十여종의귀중한活性酵素가全的으로全身에흡수되여榮養化되는까닭입니다 유아각기증쇠약증에특효가잇습니다

엇재서 藥用에는
麥酒酵母劑라야만되는가

麥酒酵母는모든자연물중「비다민B」를第一만히포함된것임으로日本藥局方의藥用酵母의條文에도『반듯이麥酒酵母에限한다』고明記되여잇는것으로잘아실줄밋습니다 그럼으로『에비오스錠』은보통 이종유의영양제와는근본적으로다르며 效果도 우수한것이니특히 위장병·기부족·폐병·임신전후·젓안나오는데에는, 꼭服用하여주시사 먼저위장을튼튼히하여주시고 모든滋養分 또는잡숫는약을 충분히 자기컨신에흡수식혀주시와 늘 건강의幸福을어더주시기바람니다。

ー약 가ー
七〇錠…五十錢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粉末이잇습
全道藥房에서販賣합니다

東京·大阪 田邊商店

麥酒酵母
エビオス錠

「콩쿨」審査後感

피아노科

朴慶浩

이번콩쿨大會에 出演한 金炯壎 朴承百 尹琦善 三君의 熱잇고 正直한 演奏를 듯고 深切한 敬意를 表하는同時에 그들의 音樂的將來를 바라보고 無限한 興味를 늣기는바 잇슴으로 그날 저녁 그들의 演奏에對하야 바든印象을 率直히 告하야 參考에 밧치려한다

1 總評

指定曲을 더퍼노코 쉬운것으로만 끌나잡는다는것은 自己藝術을 冒瀆하는 行爲이라 實狀 한 詩안에 그러케 떠러지게 쉬운指定曲이엇거니와 『쉬운것』보다는 自己의 音樂的適當와 『타입』에 適當한 曲을擇할것이다. 指定曲이 세個식이나 되는理由가 여기에잇다 세분이 全部 『마주르카』(아마그중쉽게 보이는것)── 그러나 세분이 다滿足히 演奏하지 못하엿다 原因은 첫재 指定曲을 自由曲보다 等閑히 역인것이 하나이오 쉬운것(?)으로만 끌나잡은것이 또 하나이다 尹琦善君은 『멘델존』을 金炯壎 朴承百 兩君은『모찰트』를 하엿더면 效果는 훨신 나엇스리라고 斷言한다 이두가지曲이 長短에差異가 잇스나 技術에는쇼팡의『마주르카』와 差異가 거이업는 것이다 審査의 大部分이 指定曲에 基準함을 알엇더면 조흘번하엿다

그다음엔 自由曲들이 各自의程度에比하야 너무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難曲을 充分히 理解하야 全體的으로 表現價値가잇게 演奏하기까지에는 相當한 時日의 間隔이 잇스리라고본다 程度에 넘치는曲이어서 技術이 딸닌다는것도 損點이어니와 그만콤 自己藝術에對하야

理解가

不足하다는 弱點을 보이는것이 尤甚한 失敗이다 그리고 自己藝術에 對한 理解와 또自己가演奏하는曲에 精通함과 아울너 自己의 樂器에對하야 充分한 智識과 了解가 必要하다 『피아노』는 決코 우리가 任意로 치는 樂器가 아니라 노래하는 樂器다 『피아노』를 치기는 거의 아모나 할수잇스되 노래하기는 그러케 쉽지못하다 當夜의 自由曲三編이 全部 音響하고도 節制된 노래」들이다 그러나 노래하는 소리보다는 치는소리가 더만히들녓슴을 君自身들도 알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먼저 아름다운 소리내는法을 배호라 소리가업스면 音樂은업다

二、金炯壎君

君의 熱情과 『메닐링』(발누르는것)이 조타 그리고 手巧(우리가보통『텍닉』이라고 부르는것)에도 相當한 練磨를 볼수잇다. 그러나 句節(Phrasing)는 全部업스며 明瞭(『크레센도』『띄미뉴엔도』等)이 分明치못하다. 總評에말하엿거니와 兩曲에

全體的

效果를 俊秀하게評價하기 어려운 당 君의曲을 『스켈초』로만 하여서는 안된다.『쇼팡』의『스켈소』라는것을 보담더 深刻케 注力하여야한다. 그리하야 『스켈조』를 通하야 쇼팡을演奏하엿서야 될번하엿다

3、朴承百君

冷靜하고 沈着한 學徒이다 『메닐』의 利用이 거의업는듯하다 指定曲은 無用의『메닐』로 因하야 망치고 말엇다 『피아니스트』는 손마못하지안케 발에도 技術이 잇서야함을 아는지─ 그리고 指定曲에서『템포』(速度)를 突然히 작구 變하는데 질색이엇다 『톤』이 大端히 빽빽하고 相當히 手巧도 不足하고 切付는 全然하다 難曲을 試하려하지말고 程度以內의 高尙한作品을 반드시 先生과 議論하야 練習하되『메닐링』『톤』『句法、明暗法等에 特히 注重하기 바란다

4、尹琦善君

前途多望한 音樂少年이다 曲에 對한 理解가 比較的 깁고 『톤』이 明瞭하며『메닐링』『句法』手巧等 年齡一致的技術이 相當한 境地에 잇다 그러나 年幼하니만큼 『따이나믹쓰』(强弱)가 不定하고

必然的

으로 曲節이 缺하다. 當夜에 特히 疲困하야 多少의 失手가 잇는듯한바 此曲翔稱로하야 이다음에는 演奏를 압두고 身體의 疲勞를 삼가기 바란다. 절놈비리가 절놈비리된까닭은 한다리가 길기때문이라 우에말한 모든短點은 喜悅한長點엽헤서 집어낸것이언마는 紙面의關係로 長點을 다말하지 못하니 저욱히 遺憾이다 秋季만음이라도 落心하지말고 오직 自重自發하야 倍前의 努力으로 次回에 또한번 參加해보기를 企待한다 (끗)

朝鮮現代詩의 硏究

─그 批評以前의 享受過程에서─

(一) 李 歇 河

緖 言

文學에 關心을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말이잇다면 그것은 아마 詩라는 말일것이다。 우리는 詩가 文學全般에잇서서 엇던

地位

를 가진것을 잘알며또 詩의 理解가 文學全般의 理解에 한참다운試金石이 되는것을 잘안다。 우리는 따라 우리의 修業途程에잇서 무엇보다도 먼저 詩의 洗禮를 밧기 願하며 詩의 理解와 詩의 體驗을 爲하야서는 모든 努力과 時間을 앗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모든努力과 犧牲에도不拘하고 우리가 때로머물러『詩란무엇인가』『詩란 엇더한것인가』를 反省할때 또는 詩에關한우리의見解를 表明할立場에 설때 우리는 매양 詩가 捕捉하기힘든것을 느끼며 詩를 明白히말하기를 躊躇하며 逡巡하지아니할수업게된다。 勿論 여긔 우리를 代辯하야 詩를 가르처줄 先覺이 업는것은 아니다。『에리스토-틀』에서 『리차-즈』에 일으기 까지 詩人이나 批評家로서 詩를 解明하고 詩를 定義하려고 한사람은 決코 적지아니하다。

『詩는 한模倣이오 사람은

天性

으로 模倣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것이다。』『詩는 主로 一般的眞理를말하는것이다』『詩는 想像이 理性을 愉悅함으로써 眞理를 結合식히는것이다』『詩는 平靜한가운데 回想한 情緖에 起源을둔 深刻한 感情의天然스러운流露다』『詩는 想像의 表現이다』『詩는 事象의 精神을 具現하려는 不斷의 努力이다』『詩는 人生의批評이다』『詩는 創意 趣味 思想 激情그리고또 사람의 心情의 洞察을 表現하는 韻律을가진 想像的言語다』『詩는 最善의 秩序를가진 最善의말이다』等等 一一히 列擧하려면 그야말로 制限이업는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解明이나 定義에서 엇는것이 잇다면그것은 우리가 詩의 엇더한 것인가를 會得하는데 잇다느니보다 도로혀 우리의 傳達手段인言語가 詩를말하기에아직 엇더케粗雜한것이며 不完全한것인가를 깨닷는데잇다는것이正當하지아니할까한다。 우리는或時將來에 우리의

思想

과情操의 모든姿體와 모든變幻을 말할수잇는 豊富하고 또洗鍊된말을 가짐으로써 詩를 明白히말할수잇게될런지도 몰으겟다。 그러나 오날 우리의가진言語로서는 詩를 明確히말하고저하는것은 到底히 期待치못할바이요 따라 詩는오날의우리에게잇서서는 아직 한개의神祕에 屬하는것이라고하여도 無妨하다고 생각한다。 한神祕! 모든것을 사람의힘으로 支配하고 사람의智慧로 說明하고 說明하려는現代에 處하는 우리로서는 容納하기어려운말일는지 모르나 以上 이定義도 結局은 한度限努力이라고 할수밧게업슬것이다。 그러고 事實 詩의領域에잇서서도 詩를 明白히說明할수잇는 現象에 還元하고 在來에잇서詩에 賦與되여오든 모든神祕로운後光을 剝奪하려고하는것은 現代詩論의한顯著한傾向이다。 그러나그成果를두고볼때 우리는 거긔 在來의詩論이 提供하여온 解明이나 正義에比하야 別로 큰

差異

를 보지못한다。例건대 이러한 詩의 한새로운定義를두고 생각하여보자『詩는 그어느特質에잇서서도 基準經驗과 어느程度以上 다른點이업는 한部類의經驗이요 基準經驗이라는것은 完成된作品을 觀照할때의 詩人의 適切한 經驗이다』── 이것은 心理學者로서 科學的으로解明하려고한 『리차-즈』의 이른바『詩의定義』다。 그러고『리차-즈』自身은 이보다 더完全하고 이보다 더만흔 運用性을 가진 定義는 생각할수가업다고하엿다。 그러나 大體 詩人의 適切한 經驗이라는것은 엇더한 것인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긔 한참다운詩의定義 特히 詩批評에잇서 한適確한基準을 提供하는 詩의 定義를 가지게되겟다。 그러나 詩人의 經驗이 엇더한것 인가를 말하지 아니한

情熱의나라 西班牙、꿈의나라『스페인』! 이나라의 祝祭日이 되는 수만흔 젊은男女들은 盛裝을하고 거리에 모혀서『칼멘』의 노래를부르고『집시』의춤을 추답니다。 寫眞은 그光景

意◇味◇와◇主◇題

午前의 詩論 技術篇

(9) 金 起 林

句節

을들어 詩를말하고 또英國의現代派詩人『머이스필드』가 가리布臘詩의 古典을 引用하고 거긔準하야 詩를말하엿슬때 가장賢明한態度를取하엿다고생각한다。 以上 이定義도 ... 이런한意味에잇서 筆者는 亦是『아-놀드』가 그의 『詩의硏究』에잇서서『호우마』를 들어 詩를 말하엿슬때 ...『詩의 硏究』의詩의 가장아름다운 意味의 問題와 關聯해서 뒤니 어머리에 떠올라오는것은 主題의問題다。

混

그런데 이두가지 概念은 지금까지는 매우 混同되여서 생각되여 왓다。 그詩의意味가 무엇이냐 하는말은 곳 그主題가 무엇이냐를말하는것이라고 하는생각이 그대로 通用되여 왓다。 個個의作品은 그作品自體의 秩序를 가지고 잇고 또 잇서야 한다고 압헤서나는 말햇다 그詩의 意味、소리、모양은 서로얼게를걸고 이秩序에 合致하는것이다。 그래서 한詩의 全體를 統一하는 이秩序를 規定하는것이 바로 主題라고생각한다 일즉이 『부르통』은 『아라곤』의 詩『赤色戰線』이 한개의主題에 依하엿다는 口實로非難한일은 有名하다。

歸

意味를 拒否한 現代詩의 어떤 過激派는主題마저내던저 버렷다。 統一이라는것 調和라는것 均整이라는것은 언제든지도 偉大한藝術의 屬性이면서 現代처름 그것들이 賤待를 바든적은업다。 그것은 現代文明의 混亂과 및 거기서부터오는 個性의 分解作用 이러한것의 避할수업는反映이엿다。 새로운心理學은 또한사람의마음을 한統一된것으로 생각하든 우리들의 單純한 思想을 깨트려버렷다。 例를들면 精神分析學이 가르치는바에의하면 混沌、分裂、幻그러한것이 意外에도 아름다운魂의 숨은 面이라고한다

變

自己分裂의 苦悶은 現代詩에 여러가지 映像의 同存 및 飛躍에서오는印象의 無秩序한 混亂을 가저왓다。 여기에主題는 考慮될餘地가업고 意識의 混亂이 濁流와가티 흘러넘친것이다 또한 모든 政治主義나 宣傳家가 詩로 侵入하는門은 主題다 아페서도 여러번 말한것처름 詩를 詩以外의 價値에 隸屬시키려는 哲學的主題, 政治的主題의 復歸를 拒否하도록 偏狹해서는 아니될것이다。그러나 여기에 넘지못할 한

境

界가잇다 卽 哲學이나 思想이 詩에 드려올때에는 詩的인것으로서 完全히 詩속에 溶解되여 한개의 全體로서의 詩의秩序에 一致되여야 한다는것이다。

敵

그것들이 가장 接近하기쉬운 모-든 外的目的을 拒否하기 爲하야 運命的인 主題그것조차를 全的으로 放棄하엿다。그結果는 詩를 防禦하려는것보다도 더만흔것을 일허버리고마럿다。 假令 現代詩의 喪失은 그러한 일허버린것중의 가장 愛惜하것의 하나일것이다。 아름다운 觀念의 秩序── 그것은 아름다운 詩임에 틀림업다。 古來로 詩와 哲學의 調和는 매우 圓滑하게 圖謀되엿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現

代에와서 哲學과함께 亦是 詩에 잇서서는 外在的價値인 政治에對하야 詩는 왜 그처름 굿게 武裝할必要가 잇섯든가? 그까닭은 위선哲學은 사람의觀念의 世界에 屬하야 그처름 强烈하게 그存在를 主張하기위하야 詩를 無視하려는 意圖는 그러케 보이지 아니하엿다(勿論例外도잇지만)。 그와 反對로 政治는 그보다도 行動의 世界에 屬하야 모-든 政治思想은 반드시 行動에 直接的으로 連結된다。 따라서 그性質은 本質的으로 獨裁的이다。 現代의 여러종류의

政

治主義가 詩에 드러왓슬때 그것은 大體로 그自體의 主張때문에 詩의 自律性을 威脅할것은 事實이다 하야 詩를 手段으로만 認識하고 또 쓸때 따라서 詩의評價에잇서서 詩的價値말고 政治的思想的 宣傳의 效果의 打算만이 考慮될때 거긔는 勝利를자랑하는 宣傳의 방아래 꺼꾸러진詩의 屍體가 가루누어 잇슬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모-든

考證行脚

海西의名勝、白川

(5) 方 鍾 鉉

이와가튼 變遷으로서 오늘날까지 이르럿스니 힌이 오늘날 한으로 變할수잇는것은 今日에 勝止된 『音ㄱ』·『ㄱ字로 因하야 생긴事實로서 그例는 여기에 새삼스럽게 들어서 證明할 必要조차 업는것이다 그러므로 한다리는 上記한 諸事實로 밀우어서 白다리로 되를

是認

하지안흘수 업는것이나 다만 아래 나은 문제는 다리라고 하는말이다 至今은 大橋라고하야 橋字를 使用하지만은 우에 말한바와 가티 古書에는 白達이라고하야 達字를 使用한것으로보아 橋의 意味를 가지고 떠난 어떤 다른意味를 가지고 잇는가하는것을 생각하지안흘수 업다 여기에서 橋字의 意味를 當然히 생각해야 할것은 이런 문제이다

當然

히 다리로 하엿슬 것이오(達)다리로하지 안엇슬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이제는 達字를 한번 參考해볼 順序인가한다、三國史記에

梨山城本加尸達忽
僧山縣一云所勿達
谷山縣一云松村活達
功木達一云熊閃山
開山縣本高句麗菁達縣
蘇山縣本高句麗冬斯肹縣
松山縣本高句麗夫斯達縣
兎山本高句麗烏斯含達縣

이밧게 例를 들면 그數가 相當히 만흔것이지마는 여긔는 上記例만을 擧하여 이에 近似한 意味를 包含한者는 全部 省略하엿다、何如間 우에 들은 例로만 보아도 이 達字는 山이라는 意味를 가진것임을 알수잇스니 만일 이것이 山이되고보면 오늘날 白川은 根本白山이 되지안흘수업다、이것은 白川地名의 變遷에 關한 史的事實을

參考

할必要를 느끼는點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 한가지 또 아래와가튼 事實을 새로 念頭에 두게되는것이다。

좀더 分明히알고 시픈것이 事實이다。

하ᄃᆞ리(鶴橋) 龍歌一P46
ᄃᆞ리에(橋外) 龍歌八七
橋頭同訓皆云 다리 正言覺非卷一

이와가티 古書에는 ᄃᆞ리로 記載하든것을 이것도 亦是 上記한바와가티、字體係로 因하야 다리로 變할것은 으레이 當然할 일이다。그러면 龍飛御天歌에 橋의뜻은 ᄃᆞ리로 全部 달엇는데만큼 白達도 이것이 만일橋의 뜻이 包含되엇다고하면

을 미리말해두고저한다

達川高句麗工水達縣
至忠州達川달내(龍歌三P·13)
己巳隨州之達川달내
(龍歌五P·42)

이와가티 達字를 川의意味로 使用한듯한例도 極少數나마 發見할수잇는것은 이達字의 意味를 좀더 究明할 必要를 느끼게하는것이다

우에서 말해내려온 모든事實로보아서 한다리(大橋)는 根本白達(한다리)이든것임을 알수잇고 더나아가 이 白達이라는川名과 이邑名인 白川과가、根本은 가튼語源을 가지게 되는 바이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바 白川이 되는 根本문제가 解決이 되엇다고 본다 다만 白川이란 邑名이 白達이라는 川名에서 다시 바꾸어말하면 白達이라는 川名이 白川이라는 邑名에서

起源

되엇는지 아닌지는 그문제가 처음부터 歷史家의 考證을 必要로 하는바이므로 내가 생각할範圍밧에 잇는줄 알아서 이것만은 後日의 그機會를 엇기를 기다리기로한다

━무거운 가을━

北岳山 (11)

成聽松堂의遺址

湖 岩

山이 놉지안허도 仙이잇스면 名山이오 물이 깁지안허도 龍이잇스면 神기롭다 白岳의南麓에 五百年의 王氣가 모엿스니 神靈하다면 이에서 더

神靈한

것이 어대잇스랴 그러나 내의니른바 神靈은 이런意味가 아니다 白岳의東麓에 仙佛의殿宇이 잇서 일즉 鸞鶴가튼道人과 毒蜮가튼 異僧이 살엇스속 이로서神靈하다하겟느냐 이들보담도 白岳의 西麓에 숨어서 聖賢의敎를 즐겨한돈、中宗朝遺逸인 成守琛그분을 들고십다 成守琛의字는 仲玉이오 號는聽松이니 儒敎의理想인 堯舜의政治를 그대로 實現하려다가 己卯士禍에 몰려둔 아간 名賢 靜菴의 門人으로 儒賢成牛溪의 아버지라 自己師友들이 모다 當時朝廷에 벼슬하되 聽松만은 본대 그天性이 名利에 澹泊함으로 出仕함을 즐겨아니하고 白岳기슭의 幽邃한 巖壑과

溪澗을

사랑하야 松林속에 집을짓고 聽松堂이라 이름하고 이로써自己雅號를 삼앗다 門을굿다닷아매고 實學에 用力하며 古道를躬行하야 才德이 純備하니 朝廷에서 그高風을 欽仰해서 여러번 薦擧햇스나 나가지 아니하고 聖代逸民으로 一生을 마치게 되엇다 大槪은 在市朝라하드니 聽松堂은 維揄下의山林中에 隱遁하엿섯다 鬪爭的인 力의道德을 高調하는 現代人으로는 이退嬰的隱者生活에 對하야 크게 不可하다 할터이나 이것이 녯날에 잇서서는 가장 高潔한 生活이엿슴을 일어야 하겟다 德不孤隣으로 成聽松과 거의 때를 가티하야 開城花潭에

徐敬德

이란遺逸이잇스니 역시 그隱居한 地名을 因하야 徐花潭이라 稱하엿는바 中宗朝에서 여러번 불럿스나 나가벼슬하지 아니하고 聖賢의道로 自娛하엿섯다 그리하야 漢陽의 白岳과 開城의花潭이 이同時並生한 두遺逸로해서 그이름이 世間에 더욱 놉게되엇다 成聽松의 逸話로 늘날까지 傳하는것이 잇스니 그가 하루는 黃昏에 혼자 안젓슬 새 猙獰비슷하고 鬼神비슷하어떤 怪物이 屏隅에 나타낫다 注意해본 즉 그몸엔 紺色의 베홋니불을 둘럿는데 그것이 발꿈치까지 츨 끌리며 호트진 머리끝이 땅에 드리워 바람을 따라 날리는데 그호트진 亂髮사이로 번적이는 동굴한 두눈은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린다 이때

聽松은

泰然自若한 態度로 怪物에게 號令하야 갈오되 네가 만일妖魅이면 내집에 가저갈物件이 업고 네가 만일 鬼神이면 幽明이 殊異하니 밧비 물러가거라 말을 마치자마자 그怪物이 숨엇이 버렷다 한다 倉卒間에 마음을 움즉이지 아니하고 一言으로 怪物을 退治함과가틈은 平生定力의 一端을 볼것이다 現淸雲洞八九番地 京畿道立商業學校의 後園이 곳 聽松堂의 遺址란다 名利에 아주無心하든 成遺逸의 집터에 오늘날 商利를 꾀하는 商業學校가 생기게된것은 이얼마나 諷刺的이나 비록偶然한 일이나 또한 好對照가되며 따라 古今時勢의

變遷이

큰것을 알것이다 謙齋筆인 聽松堂圖가 잇스니 堂에 面한巨岩에『聽松堂遺址』의 五字를 삭여섯고 또 그그림中에 그린 小松細纖도 지금까지 오히려 그痕跡이 幾存하며 細瀑附近의 岩面에는또『幽蘭洞』의 三字가 삭여잇는바 오늘날도 白岳의松林에 遊步하는 손으로 하여금 當時聽松堂의 高風을 생각케한다。

理性의 敗北

(二) 姜 漢 仁

한社會에잇서서 知性 或은理性의 必然性、Sollen이 支配되는 곳은 對立과 分裂이 업는 共同觀念의 存在를

前提

로하나니 對立觀念이 存在한곳은 一個의 知性의 必要性을 容認한것과가티 그自體의 存在가 不可能한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잇서서 歷史上으로 第一對立觀念이 稀薄한 十八世紀英國이 야말로 理性과理知의 支配한『리피칼』한 時期이엿다

『인테리겐스』或은理性이 그獨自한 그自體의 合目的性을 喪失하고 意志 或은 意欲으로써 나타날때 吾人은 이곳에 知識人(Intellectuals)과 知識階級(Intelligentsia)의區別을주는端緖를 엇게되는것이다。 知識人或은『인테리추알스』에 잇서서 知性 或은 理性의 獨自性을 抛棄한다는것은 知識人으로써 自害를意味한것이다。 知識人『가리레오』는 生命을버리고서 그獨自性을 死守하야知識人으로써 끗을 맛치게되엿다。 그러나知識階級 或은『인테리겐차』야는 獨自의存在가아니다。 歷史上的產物이다。 따라서 知識階級은 階級前의 知識人과 그認識의尺度、價値의 標準、그社會的地位等을 同一히 할수업나니 그屬性으로서 前者는 理性에 支配되고 後者는 意志에 支配되야 前者는 必要와 必然의 力(힘)의從僕이고 後者는 論理의從僕이다。 過去에잇서서 吾人은 이知識人과 知識階級의 屬性을 判別치안코 混同하엿슴으로 因하야 그

價値

로하여금 한개의 尺度로한知識人으로 轉換함으로써 理性을 唯一한 『스미스』에 依하야 直接商品에로 階級的構成의直接成因을주엇다。 그래서 理性과 知性을 直接生活根據로하게되 이知識階級은 單的으로 資本主義生產機構와 對立하게되지는안헛다。 이經濟的中間性으로因하야 『베른스타인』의 知識階級의『中產階級』論이 成立되엿고 理性과知性을 生活根據로하기때문에 『노비코프』의知識階級 『社會的官能』論이 成立되엿다。

知識階級의 發生과消長은 現代資本主義社會機構의 盛衰와 密接한關聯을가지고잇는것은 말할必要도업다 知識人이 階級的構成으로써 社會前面에 나타나게된 것은 前世紀六十年代이엿다。 본래合理主義를 그思想的原理로써 發展하게되 近代資本主義社會機構는 모든價値의 根源을『아담·스미스』에 依하야 直接商品에로 轉換함으로써 理性을 唯一한 尺度로한知識人으로

이와가티 現代에잇서서 知識階級의 不安定과 混亂은 知識人과 知識階級의混同과 價値標準의轉換。 理性과 意志의 相剋으로써 說明할수잇스니 이것은 一歷史的 大轉換의過渡期에서 볼수잇는現象이다。

이經濟的中間性이라는것은 現代知識階級을 單純한知識人으로부터 識別한데 가장重要한 原因이니 近代佛蘭西부르조아革命의이데오로기『이엿든〃루소-〃『볼테-르〃를代表로한 啓蒙派와 아지크로페디-派는 純然한 知識人으로써 그들의思想的原理 合理主義였고 그들의 價値의尺度는 合理主義였고 그後 資本主義經濟機構의 矛盾에 理知主義이엿다。 經濟的中間性은 에따라 前世紀六十年代에 이르러 비로소 러시아에서 知識階級의 出現을 보게된것이다。 知識階級의

振子

와가티 極端으로서는 兩端의 根幹을가진 理知的이면서 極端으로『파나-티시즘』이 될수 잇나니 그들은 一方時代의英雄이될수잇는同時에 또한 時代의 落伍者가 될수잇는 可能性을가지고잇는것이다。〃볼케비프〃의 『루-진』은 이에關한 典型的타입이다。

가치 不安과 混亂을 招來하게되엿다。 卽 自體의 歷史的 階級的 存在를 否認하고 知識人으로써 그獨自性을 主張한곳엔 그歷史的超越性과 社會的無關心으로因하야 自由主義란名目下에 그들의 조그만 한서-클的社會에서 不安과 懷疑와 焦燥로써 해를지우는 에고이스트가 잇슬뿐이니〃흠체〃의 作品에나오는 그意志업는 知識階級〃을케이프〃와『루-진』에나오는『피가소프』

結果

가 오늘날 一般으로볼수잇는 現象은 混迷하야 實際에잇서서는 一方歷史的 階級的存在를 認定하면서 實際에잇서서는 知識人으로써 아모意識하기때문이다。 그럼으로 이들에게 잇서서는 『소프』갓흔타입 밧게될수업다。

秋燈讀書

讀書禮讚

金 晋 燮

내가 萬一에 내生涯를 한번通觀하여본다면 내生涯에 잇서서 가장幸福된 時間을 나는 아마도 書籍에歸着식힐수밧게 업슴을 發見한다。 조흔 書籍은 恒常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提供하면서 그러나 그自身에 엇더한것도 우리로부터 要求치는 안는다。 書籍은 우리가 듯고십허할때 말하여주고 우리가 疲勞를느길때 沈默을직혀준다。 書籍은 몃달이나 몃해나間에 참으로 참을성잇게 우리오기를 기다려、그리하야 우리가 하다못하야 다시 그것을 손에든때라도 書籍은 決코 우리의 感情을 傷하는일을하지안코 恰似그것은 最初의 그날과가티 親切히 말하여준다。 冊을가지고잇고 그리고 그것을읽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런사람이면 그는 決코 完全히 不幸할수는업다。 이地上에 잇슬수잇는 가장조흔 社交를 그가갓는데 웨 大體그는 不幸하여야 된단말이냐?(파울·에른스트)

黑風

【145】

韓 龍 雲 作

金 熊 超 畵

광동(廣東) 1

이튼날 아침 열시에 왕한과 창순은 봉숙과 여러 동지들의 은근한 전송을 바드면서 광동으로 향하는 차가오는대의 사람이 되얏다 그들은 산천풍물을 구경하면서 웃고 말하다가 왕한은 향항에 대한 력사를 말하게 되얏다 향항은 광동에서 멀지아니한 섬인대 주위가 사십리 오 면적이 사십방리로 항구가 넓고 물이 깁허서 수천척의 배를 용납하는대 세계에 유명한 항구엿다 그런대 옛적에는 아편전쟁(阿片戰爭)때에 영국 군사가 점령하얏고 그로 인하야 청나라 도광(道光)이십이년에 영국에 할양(割讓)하야 영국에서 총독을두고 다시리는대 향항의 주위에 모다 포대(砲臺)를싸코 그후에 구룡만(九龍灣)까지 영국의 세력범위에 드럿다는것을 말하는 왕한은 말을마치자 한숨을 길게쉬면서 다른사람들을 도라본다 창순은 그말을 드를때에 향기튼 조흔 항구가 당당한 자기나라의 령토로서 한때의 실패로 남의나라에게 빼앗겻다는 것이 분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야서 더욱이 혁명의 필요를 말하고 십헛스나 차중에잇는 여러사람을 저어하야 말은 하지아니하얏스나 얼골에 나타나는창연한 빗과 격분한 기운은 왕한으로 하야금 창순의 마음을알기에 족하얏다 왕한과 창순의 안진 마진편으로 두어간쯤 떠어서 끈리인 듯한 영국사람이 안꼬 그마진편에 청인이 안젓다 그청인은 영어로 영국사람에게 대하야무엇을 하는대 말이 별로 끈날새이가 업섯다 창순은 영어를 아지못하는고로 그사람이 무슨말을 하는지는 몰낫스나 그의 말하는 태도가 아첨스럽고 비루(卑陋)한것을 알게되야서 그것을 보는 창순은 심히 불쾌하얏다 왕한은 그들을 한두번 흘깃 도라보고서 유심히 보지는 아니하엿스나 귀를 기우려서 그사람의말을 듯다가 창순의 귀를 손으로 가리면서 손바닥을 놉것다 떼엇다 한다 왕한이도 더 말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보다가 다시 가방에서 영문책을 내어서 보다가 그리하면서 각금각금 창순을 보다가 손다닥을 귀에대이고 눈짓을 한다 하는것을 보고 우스면서

『드러도 모르는 영어를 안드를라고 할것은 무엇잇나요』

하고 창순의 귀를 본다 창순은 눈만 둥그러 왕한을 보면서

『나는 소리도 듯기시려요』

하고 두째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면서 다시 차밧글 내다본다 왕한은 창순의 생각이 고마웁기도 하얏지만 그리하는 태도가 어린양인듯 하야서 더욱 어엽부고 귀여웁게 뵈엿다 왕한은 웃으로 꺼근듯하면서 뻬비가리 보드러운 창순의 귀각은 손가락을 보다가 다시 류리창에 비치는 창순의 얼골 그림자를 보앗다 창순은 차창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전선대를 헤이다가 헤이지 못하고서 차가 망홈에 이르럿을 깨다랏다 귀해하는 늣지를 채이고 조금후 스면서

『왜 그러시오』

하야보다 창순이도 왕한의 무는말을 아랏다는듯이

『저게 무슨말들을 저러케 할까요』

하고 반문하얏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나라 사람의 단처(短處)를 말하고 지금은 영국사람의 장처(長處)를 말하는것입니다』

창순은 눈을 동글게 뜨고 왕한의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듯다가 얼골빗을 변하면서 입안의 소리로

『비러먹을놈 드러운놈 개가튼놈 저런놈들 꼴보기시려 언제나 저런놈들이 업서질까』

하는 창순은 몸을 차창편으로 돌려서 류리창으로 기대면서 눈을 돌려서 류

雨順風調의 天惠로 空前의 豊作을 豫想

總收穫豫想高百六十餘萬石

黃海道今年米作狀況

【海州】황해도 일대의 금년미작(米作)은 천후의 혜택을 바든데다가 기온강우(氣溫降雨)조차 순조로워서 대풍작이 예상되고잇는데 황해도 농무과(農務課)에서 발표한 제일회 수확예상고를 보면 수륙도(水陸稻)합하야 일백륙십사만 일천칠백이십사석으로 작년 수확고에 비하야 십사만칠천칠백칠석의 격증을 뵈이고잇다 그런데 그내역을 보면

수도(水稻)는 작부반별(作付反別)이 십사만일천칠백 이십사정팔반보로 전년에 비하야 사백륙십칠정구반이 증가되엿는데 수확예상고는 일백륙십만 사천이백팔십사석으로서 전년 실수고에 비하야 십사만오천팔백팔십석 즉구부삼리의 격증을 뵈이고잇스며

륙도(陸稻)는 작부반별(作付反別)이 사천구백팔십오정오반보로 전년에 비하야 일백오십삼정구반보가 증가되엿는데 수확예상고는 삼만칠천사백 사십석으로서 전년도 실수고에 비하야 일만이천팔백이십석 즉오분팔리의 증가를 예상하고잇다

藥湯開業紀念 兩學校에 贈附

【鎭南浦】진남포비석리 라상근(羅相根)씨의경영으로 진남포의 처음인약탕(藥湯)을 총공비만여원으로 신축중이든바 이즈음완성되는대로 즉시허가도 될모양인바 라씨는 이를기념으로 부내상중 두신(三崇信昌)량사립학교에 일금오십원식을 기증하엿다고한다

鎭南浦碎氷船 鎭南丸의 廻航 十三日頃着鎭

【鎭南浦】조선 상대 무역항의 하나인 진남포항은 결빙기(結氷期)만되면 류빙(流氷)으로인하여 귀선의 출입이 부자유하기때문에 진남포발전상 중대문제로 그저간 삼백여만 일천이백마력의 쇄빙선(碎氷船)을 제조중이든바 지난사십일 조선부에서 인수하여가지고 무선전신장치를 완비한후 오는팔일경 우야망(宇野望)을 출발하여 십삼사일경 진남포항에 웅자(雄姿)를 나타내일모양이라는바 금번부터는 부동항으로 면목이일신케되리라하며 따라서 제이축항완성축하회와가티 성대한 축하회를 개최하리라는데 배일홈을 진남환(鎭南丸)이라고 하엿다한다

六十餘人夫勞賃 橫領犯人被逮

【咸興】홍전사(弘前社)배하 청부인 등전의웅(藤田義雄)(?)은 치곡면(峙谷面)송전사(送電)공사에 사용한 륙십여명인부 로임 삼백여원은 지불치 안흔 체로 행방을 감추고 말엇슴으로 인부들은 극도의 곤궁에 빠지고 잇든바 일일오후 한시경 함흥부내 하리관에 잠복하고잇든것을 무난히 체포하엿다

救窮道路工事로 凶作地民을救急

撒布勞賃이九千餘圓

【咸興】작년도 미증유의 작흉으로 식량이 결핍되여 아사의 위경에 빠지고잇든 흉작민을구제하기위하여 시행한 호인 혜산(好仁、惠山)간 이등도로 개축공사에서 오월상순부터 구월십일까지 삼수군민(三水郡民)에게 산포된 로은은 구천륙백륙십삼원 칠십오전으로 취역연인원 일만이천팔백팔십오명에 대하여 일명당 일일 칠십오전이며 출역호수는 일백팔십삼호로서 일호당 오십이원팔십삼전 강이나 된다는데 이로인하여 다소의 구급(救急)은 되세움이라고 한다

市街發展反面에 細窮民去益受難

土地家屋의 騰貴로 借家難尤甚

躍進元山의 矛盾相

【元山】원산지방은 일천만원의 석유제정공장 설비바람에 교외의 토지시세는 한평에 사오십전하던것이 일약 이원내지 삼사원에 폭등하얏고 따라서 원산시내의 요충지대는 수백원식호가하게되여잇스며 이에 반수하야 원산의 가옥가격도 등귀하는 형편인데 이로말미암아 차가난의 소리가 점고하고 잇다 그리고 지난일월부터 구월말일까지의 구개월간 원산시내에서 신축 수축 증축 개축등의 가옥건축 신청수계를보면 이백팔십팔건으로 작년동기에 비하야 일약백륙건이 증가되엿다 더욱히 지난구월한달의 건수만도 오십구건으로 전년동기보다 이십오건의 격증을시하야 문자그대로발전하는 원산의 면모가 약여케하고잇다고한다

그러나 이반면에는 차지난 차가난 과 물가고(物價高)에 우는 세궁민 및양복세민의 신음소리가 처량이 들린다고한다

非組員不使用問題로 罷業은依然繼續

元山木工盟罷後聞

【元山】원산、함남로동회세포단체인 목공조(木工組)원 삼십여명은 임은을 인상해줄것, 공장내의 위생시설을 가급적개선할것등의 조건을 고주측이원산가구제조업조합 (元山家具製造業組合)원에게 제출하고 가구공맹파를 맹아 쌍방이 회합하고 공임을 협정한바이섯는데 그중 양복장(洋服欌)공임을 제하고는 거개일원내지 삼、사할식 인상하기로하고 대부분해결되엿스나 양복장공임이 협정되지못하야 결국쌍방의 의견이 대립하여 지난이십오일부터 동맹파업을단행하얏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지난일일에 다시쌍방이 모여 고주측양보로 양복장의 조각업는것은 평균십일원 조각이 잇서종회든것은 십이원식 요구대로 주기로되여 일부목공은 취업한바이섯스나 또다시 파업을 계속하게되엿다는데 그리유인즉 고주측은 함남로동회 목공조원이외는 일절고용치말것이라는 조건을 고주측에서 절대승인치안키때문이라고하는바 일반은 그귀취를 주목한다고한다

熊灘面民들이 普校設立을陳情

【伊川】강원도 이천군 웅탄면(伊川郡熊灘面)은 이십방리나되는 곳으로 제이가지세가 단틈원에 불과하는마치 경긔면적보다 살림면적이 만흠으로 면민들의 생활은 대개가 화전경작임으로 삼년간 계속적흉작으로 도지방비의 구조를 밧든중 금년도다시 서리로인하야 농작물이 전멸을 당하야 생도가 막연하나 일면일교제가 명년도에 완성을 보게 되나 웅탄면만은 보통학교설립부담금은 한푼도 낼날러이나 꼭 웅탄면에 보통학교를 설치하야달라고 진정하엿다는데 사실에잇서서 웅탄면에보통학교가명년에 실시되지안는다면 이천의 교육계의수치라는것보다 강원도내의 일면일교제가 다되지못하는것이라고 일반은 도당국의 처사를 주목중이라고한다

新築落成機會로 重要備品遝至

【古邑】정주조선 유지제씨로부터 정주오산고보(五山高普)에 회재부흥의금으로 보내는 거대한금액과귀중품이 련일 답지하고잇다는것은 본지에 루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번 동교신축락성식을 긔회하야 또 유지제씨로부터 직접 학교에차저와서 라성식을 축하하고 귀중한 긔구를 긔증하엿다는데 한분은 정주군갈산면 흥록동 (定州郡葛山面興祿洞)에 거주하는 김원건(金元鍵)씨로 가격 오백오십여원의 피아노를 동교에 기증하엿고 또한동교 역시 적그동리에 거주하는 청년동지가 김창도(金昌濤)씨로 가격 일백오십원의 중앙고상대(中央高商臺)와 수은청우계(水銀晴雨計)일대식을 기증하엿고 오산교회 (五山基督敎會) 에서도 가격칠십여원의 서적을 동교도서부에 기증하엿다고한다

天主敎朝鮮傳來 百五十年懷古記 (四)

平壤 金晩炯

六、朝鮮敎區分立

신교의 자유가 선포된후에도 신구사조의 충돌은 끗치지안허 일천구백일년에 제주도(濟州島)에서 천주교도 칠백여명이 학살을당한 사건도잇섯다 하나 교세는 무서운형세로발전되여 일천구백삼십사년말현재로 교도수는 십삼만삼천백사인 사교(司敎)가인 교구장(敎區長)이 인 감목대리(監牧代理)이인 외국인신부(外國人神父)팔십오인 조선인신부(朝鮮人神父)팔십오인 외국인수사(外國人修士)이십사인 조선인수사(朝鮮人修士)구인 외국인수녀(外國人修女) 사십팔인 조선인수녀(朝鮮人修女) 일백륙십오인 회장 전도사(會長、傳道士) 일천구백구인에 달하엿다

이리하여 교회당(敎會堂)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잇서서 단일교구(單一敎區)로서는 도저히 선교상으로 사업상으로 소긔의 원활등 기약할수업스므로 다음과가티 다섯교구로 분할하는동시에 각자의 교구에서 각자의 임무를수행케되엿스니

▲京城敎區▲大邱敎區▲元山敎區▲平壤敎區▲延吉敎區

의 다섯교구아래에는 소교구(小敎區)가 일백 이십오개처나잇고 여긔에 전속하는교회당이 오백륙십팔처의 다수이며 소포교소(少布敎所) 까지 합하면 실로일천삼백칠십개처나된다 그리고성직자들을 양성할목적으로 신학교(神學校)가 네곳 여긔에서 수업하는 신학생(神學生)은 이백십오명이잇다 수도원(修道院)이두곳 수녀원(修女院)다섯곳이잇서서 각기만흔수도사와 수녀를 수용하고잇다

천주교로서 크게자랑할수잇는 동시에 큰공헌을 하고잇는것은 초등학교 (初等學校)긔관을 백십오개교나 가지고 잇서서현재도 일만륙백사십팔명의 희동을 수용하야 조선민중의 문맹타파운동을 계속하고 잇는것이니 평양성모보통학교(聖母普通學校)의 가튼것도 완전한 초등교육긔관의 한아이다 중등학교(中等學校)일교 생도이백칠십구명이 잇는것도 단연자랑이다

◇寫眞…信徒迫害의 一場面

이밧게 자선사업 긔관으로는 고아원(孤兒院)이 네곳에 고아 삼백이십오명을 수용하고 엿스며 양로원(養老院) 네곳도 엄연한 존재일것이다 전속경영의 인쇄소 (印刷所) 세곳 빈민에게 보내는 시약소(施藥所) 여섯곳 월간잡지사(月刊雜誌社)도 셋식이나 가지고 잇서서 교도는 물론 일반에게까지 적지안흔 문회사업을 계속하고 잇는것이다

이상과가티 과거 백오십주년동안 가진박해와 모진 풍상을 경과하여 금일의 성운을 마지한 천주교회에 대하야 필자는 만강의 축하를 표하는 동시에 홋의 꾸준한 노력 으로 보담더 만흔 조흔 사업이 속출하기를 바라는 터이며 조초전래 백오십일주년 조선 최근순교(朝鮮最初殉敎)백오십주년 조선제일대주교서거백주년 조선순교목자시복십주년 종합긔념축하대회(綜合記念祝賀大會)를 개최하는 삼일간 우리중에게 만흔 모범을 보혀주기를 바라는동시에시간과 지면관계로 이야말로 주마관등식으로 희구특을 끗마는바이다 (終)

五千信徒會合裡에 歷史的豪華版開幕

天主敎朝鮮傳來百五十週年間 ─初有의 一大會合─

【平壤】천주교조선전래백오십주년긔념식은 이일오후두시오십분『마렐라』교황대사(敎皇大使)일행의 평양역도착을 사천여명신도들의 환영하는 력사적파경으로부터 개막되엿다 멀리북간도(北間島)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의 남단제주도(濟州島)에서까지 그리구 경성(京城)대구(大邱)덕원(德源) 원산(元山) 함흥(咸興)해주(海州)신천(信川)재령(載寧)은률(殷栗)의주(義州)서포(西浦)안주(安州)영유(永柔)비현(批峴)진남포(鎭南浦)등지에서 혹은오십명、혹은칠십여명식 긔차로 자동차로 자전거로 도보로 대회장인 평양을 향하여 모혀들어 일일오후열시까지에 대회안내소에서 수리하여 각려관에루숙한수효만이 이천명을 돌파햇다

이리하여 평양부내 신도이천여명까지 가산한다면 실로사천여명을초과하여 천주교 조선전래우사이래 처음보는 일대회합인동시에 시련이랄수도잇는 력사적대회로의 전개될것이다 삼일간의 절차는 다음과가트며 집회장소、일시그리구 중요주최를 간략히소개하면 다음과 갓다

十月一日부터 熙川价古間開通

【平壤】공사중에잇든 평원선(平元線) 희천 개고간(熙川价古間)(三十粁二百米)은 준공되여 십월일일부터 개통영업을 개시하엿다한다

本報仁川支局後援 京仁의拳鬪試合

仁川拳鬪俱樂部에서

【仁川】인천권투구락부는 동경전수대학(專修大學) 권투부선수 신태영(申太泳)씨를 사범으로 추대하고 시내룡리(龍里) 장경환(張慶煥)씨 륵지에 의하야 동사택에림시링을 특설한후 시내에 산재하야잇는 권투선수를 열심배양하야 오기를 벌서 일년이라는 역사를가지게되야 탁월한 선수를 만히 어게되야 근근 경성권투구락부 (京城拳鬪俱樂部)와의 대항시합을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개최하리라는데 장소를 물색중에잇다하며 선수입동은 매입가티 맹련습중으로 만흔권투〃팬〃들의 주목을 잇끌고잇다한다

史料展覽會場과 殉敎聖劇의 盛況

천주교 조선전래일세긔반 축하식은 이상과가튼 호화로운 절차로 진행되거니와 그중에서도 가장주목을 끄을며 력사적가치가 풍부한것은 카토릭 사료전람회(史料展覽會)일것으로 전람회장은 도서참고관(圖書參考館)과 순교관(殉敎館)의 두곳으로 난호여 도서관에는 정약용(丁若鏞)의아들 정하상(丁夏祥)이 순교직전인옥중에서 일천팔백삼십구년 을묘년(乙卯年)에 당시우의정(右議政)리지연(李止淵)에게 엇지해서 천주교 박해하느냐?고 반박하는 장문의 항의서(抗議書)인 상재상서(上宰相書)를 필두로 이백여점의 귀중한문헌(文獻)과 조선최초의 신학교인 충청도(忠淸道) 배론신학교(舟論神學校)설립당시(一八五六年)의 개교식사진을 위시하야 삼백년전 서반아(西班牙)사람이 어보든과 사절들의 이야기만듯고 그리엇다는 진귀한 조선지도 (朝鮮地圖)등 이백여점이 반다시발거름을 멈추게 할것이다 순교관은 일홈과도 가티 순교사들의 유물이낫낫이 진열되엿스니 일천팔백사십륙년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신학생이오 신부엿든 김대건(金大建)의 유물과 류화지 마까오(澳門)에서 무서운 박해를 피해 가면서조선에 드러오든 고심참담한 족적(足跡)이며 순교자들의 선혈이 아직도 검붉게 말러부터잇는의복(衣服) 십자가 (十字架) 그리고 병인년(丙寅年)박해당시의순교자인 의주(義州) 최진태(崔鎭泰)가 평양옥중으로서 중형(仲兄)에게 보내엿든유서(遺書) 등이백여점과 이와 반대로 대원군(大院君)의 척사륜음(斥邪綸音)을위시하여 허무맹랑한천주교를 철저히 박멸하라는 소청만루에원(陳懲邪類疏)등이 오월동주격으로 진렬되여 잇다 이밧게도 일천팔백일년 박해당시에 주교파견을 애원한 황사영(黃嗣永)의 백서전문 (帛書全文)과 순교유공자 칠십구명으로 로마법왕청(法王廳)에서 비오십세가 시복식(諡福式)을 하든 칙서(勅書)전문등이 이채를 끄을고 대원군이 김대건 신부에게 언도한 사형판결문(死刑判決文)인 일성록(日省錄)이더욱 주목을 끄을게하여 이전람회야 말로 조선 력사상에서도 허다한 관계를 가진귀중한 재료들이 끌고루 진렬되여 비상한 인긔가 집중하여 일견의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잇다 그리고 사일오후 닐곱시 삼십분부터 금천대좌(金千代座)에서 개최되는 성극(聖劇)은 병인년대박해때 불국인(佛國人) 장주교(張主敎)와 최봉구(崔鳳九) 남종삼(南鍾三) 리신도(李身德)등 순교자적으로 일홈눕흔 사람들의 연출은 크게긔대를 가지게한다

어쨋든 이번의 천주교회의 대회합은 동교회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큰수확을 보내주고 잇는터이다

八人以上子女産育者 元山府內에 六十五戶

十二人産育이 單一戶뿐

【元山】원산서에서는 요지음함남도위생과의 명령에의하야 원산부내에잇는 팔인이상의 아이를 생산양육하는집을 조사햇는데 그중에 조선인은 오십사가족에 아동이 사백사십구인으로 일가족당 팔인의아이를 가젓고일본내지인은 십일가족에 구십사명의아이를 가젓는바 일가족당 팔인오의 평균이된다

이러케 한곳에는 아이가만허서 곤난되는 반면에 어린아이가업서서 가정상활의 화근이되는일이잇스니 조화옹의작난도가혹하기짝업는것이다

그런대 아이를 가장만히 가진가족이 단한집으로 십이인의아동을 가지고 잇다고한다

魔의立稻差押狀

長水金融組合의申請으로 南原支廳經由 만卅餘件

【南原】가정상담소(家庭相談所)라는 간판을걸고잇는 금융긔관(金融機關)인 장수금융조합 (長水金融組合)에서는 지난이십륙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청에다 립도(立稻)를 차압하기위하야 삼십여건을 신청하야 그의일인이십칠일에 정식결정을 밧게되엿슴으로 미구에 장수일대의 루른라락은 채귀의손으로 옮기리라한다 그런데 채무자의대개가 오인조연대(五人組連帶)로 쓰국히 세농계급이라고한다

第二期堤堰工事 使用人員八十萬

二年繼續으로十二年度에竣工

總工費三百七十萬圓

【咸興】장진군 상남면 갈전리(長津郡上南面葛田里) 지내장진 수전(長津水電) 제이긔제언(堤堰) 공사는 지난구월중순부터 착공하엿는데 총공비는 삼백칠십만원이며 사용로동자 예정수는 일본내지인 이백명 조선인 일천구백명 중국인 이백명 도합 이천삼백명이며 최연인원은 팔십만명이라고하는데 공사긔간은 소화십이년 십일월까지 만입개년여라한다

〃不合理한統制엔 權益讓渡絕對不應〃

論山麵子株總의決議

【江景】전조선내에잇는 국자제조업은 주조업자가경영함이타당하다는 견지에서 세무서의 지휘와 주조조합이 활동하야 국자제조를 일제히 하기 위하야 전부터 영업권의양도와 공장사무실등인수를 강경세무서로부터 종용한바 잇섯스나 론산국자회사에서는 회사창립초부터 목표로 군내국자제조업자 륙백여명을 망라하야 이래칠년동안이나 자의 권익의보장과확장등으로 상당한리익을보면서 국자제조업을 하고잇든중 금번주조업자만이 국자제조를 영업하게되여야 한다는지시는 국자제조업자의 권익을 자연 소멸케하는동시에 소비자인 주조업자의 리익만 증대케하려는 심산은 심이불공평한것이라하야 필경 당국과 수차협의하엿스나 종내방침을 어일수 업게까지되엿스나 영업권의 대상문제와 종업원의 위로금 공장시설의 시가산에 또한 차이가잇슴으로 지난이십구일 오전구시부터 론산국자회사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예산안 역원개선을행하고 다시주조조합에 영업권양도문제를 토의하게되야 장내는심히긴장한중에 열렬한반대가 잇서서 국자제조업자의 전익을 무시하고 일단 소비자의 리익만을옹호함은 부당하다하야 부결하엿다든바 이문제는 필경교섭위원을 선정하야 세무당국에다 시교섭을 하게되엿다한다

奉天旅行會에서 視察團員募集

本報支局後援

【奉天】최근 봉천에서 조직된 봉천려행회(奉天旅行會)에서는본보지국의 후원을 어더 창립첫사업으로 조선만주시찰단을 모집하게되여 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좌긔규정을 참조한후 다수참가하여 주기를 바란다한다

時日=十月九日出發 同十六日歸着

視察地=京城、金剛山、元山、朱乙、淸津、羅津、圖們、吉林、新京

會費=六十五圓也

申込所=奉天旅行會 電話六四四一 奉天驛 電話六八九四

토ー키專門의 映畫館出現

南浦朝鮮人街에

【鎭南浦】오만의 부민을가지고 잇는 진남포의 대중적 오락장소가 하나뿐인때문에 조선인시가에 영화관(映畫館)일개소설치의필요를 늣겨오든바 부내룡정리 서리근(徐利根)씨가 추경비 구만여원을드려 토ー키전문영화중락관(衆樂館)을 신축키로하고 방금당국에인가신청중 불일간인가될터임으로 즉시공사에 착수하리라는바 상층양옥의건물을비롯하야 내부설비기타 모든것이 현대식으로 될터임으로 일반은 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는바라 고한다

本報泰川支局主催 蝀龍窟探勝團

來十月十二日에出發

【春川】본보태천지국주최로동룡굴 탐승단을 모집하야 오는오일에 출발하기로 되엿든바 금번당지의 사정에 의하야 출발일자를 오는십이일로 연긔하엿는데 아직까지 신입치못한분은 오는십일까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本報讀者優待

【扶餘】충남부여읍백제사진관에서는 조선팔경(朝鮮八景)의 하나인 백제고도부여팔경을 배경으로하야 때조흔 국추(菊秋)예술의『씨ー슨』을 계긔로 십월일일부터십일월이십일까지 오십일간 본보독자에 한하야 특히 사할인으로 제공하리라는데 일반 독자들은 이조흔긔회를 일치말고 만히촬영하기를 바란다하며 특히탐승차로 오는일반단체에 한하야는 독자와한가지로 사할인으로 우대하리라한다

主日校、幼稚園 聯合大運動會

元山基靑主催로

【元山】원산긔독교청년회에서는 변례에 의하야 원산부내외에잇는 십입 주일학교(主日學校)와 삼 유치원의 련합운동회를 래십칠일 원산긔청운동장에서 개최키로 되엿다는데 당일 참가할 아동은 무려 일천삼사백명에 달하리라고하는바 발서부터 당일의 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地方人事

▲朴柄浩氏(中央醫院醫師)開業人事次本社新幕支局來訪

▲名取寬治氏(慶尙北道警部補)新任人事次本報尙州支局來訪

▲金又說氏(前海州地方法院判事)馬山支廳轉勤人事次本報馬山支局來訪

▲李泰辰氏(泗川面長)新任人事次本報泗川支局來訪

海州

朝鮮日報黃海支局長大會

▲時日 十月十二日午後三時

▲場所 信川溫泉溫泉俱樂部

◇發起人代表 李明源、李 泰、柳萬鍾、張熙文、安德根

奉天

鮮滿視察團募集

▲時日 十月九日出發同十六日歸着

▲視察地 京城、金剛山、元山、朱乙、淸津、羅津、圖們、吉林、新京

◇主催 奉天旅行會(電六四四一)

◇後援 朝鮮日報社奉天支局

尙州

金剛山探勝團募集

▲時日 十月二十二日(七日間)

▲會費 二十六圓(先納十圓申込同時)

◇主催 朝鮮日報社尙州支局

異次頓의死 【5】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이차돈은 조부의 예궐을 차비 하라는 명령을 바다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하인에게 수레를 준비하라 하고, 자긔는 어머니 계신방에 들어갓다.

『어머님!』

『오 잘 잣느냐. 고단하지나아니하냐. 나는 네가 어저께 장원한것이 깃버서 간 밤에 한잠도 일우지못하엿다. 네 아버님께서도 열여덜되시던해에 전장에 나가서 큰 장수가 되섯지마는, 꼭 넷 나이섯단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셔더면얼마나 깃브셧슬까. 아아 그런생각은 해서 무엇하게. 그러치만 원, 하도 고구려, 백제가 설레니까 너도 또 전장에나 안나가게 될찌, 그것이 걱정이다』

하고 죽은 남편을 생각하야눈물이 글성글성하엿다.

『대장부가 전장에를 안나가면 무엇을 합니까. 소자도 어서전장에를 나가고십습니다』

하고 이차돈은 빙그레 웃으며

『할아버님께 소자 다리고 곳

입시하라신 전교가 게시다니무슨 옷을 입고 가올찌?』

『오, 예궐이야 너도 장원급제를 하엿스니 인제는 한나마(大奈麻)로고냥, 어느새 서방님이 아니오 한나마나으리고냐。오 내 아들이 한나마가 되어 예궐을 하는구나 오 너 입을옷을랑 내가 손소 내어주마』

하고 어머니는 장롱을 열고 푸른바지,자주저고리,푸른전복,다홍띄、흰행전을 차례차례로 내어노흐며

『이것은 오늘 가튼 날이 잇기를 기다리고 내가 여러해전부터 손수짜서 손수 지은 옷이다. 어듸 갈아입고 내게 보여라』

하고 시녀를 불러 이차돈의 일습 옷을 이차돈의 방으로 날라가기를 명한다。

이차돈은 방에 돌아와 어머니가 주시는 새옷 일습을 갈아입엇다。품하나 회장하나 틀림업시 꼭들어마잣다。이차돈은 어머니의 사랑이 극진함을 느끼고 또 어젯밤 조부가, 젊어서 과수된 어머니께 효도하라던 훈계를 더욱 명심하엿다。

이차돈은 깨끗하게 치리고 붉은 솔달린 검은 벙거지를 쓰고 하사하신 칼을 차고 어머니 압헤 나왓다。

어머니는 소매도 당긔어보고 깃고대도 쳐들어보고 어 모으로도 보고 저 모으로도 보고、두루보고는 서너 걸음 물러서서 이윽히 아들을 바라보더니,

『어쩌면 그러케도 네아버님 닮앗느냐。돌아가신 네아버님을 다시뵙는것 갓고나。그 입모습 빙그레웃는 양이 더욱이나 네 아버님 갓고나。네 아버님은 참 피끗도 하시더니라。전장에서는 호랑이 가티 고구려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떨엇다고 하건마는 집에 들어오시면 위엄이 잇스시면서 인자하시더니라。여바라、유모 이로 좀 오라하여라 유모가 보면 얼마나 깃버하겟느냐。네가 나면서부터 너를 바다서 젓을 먹이고 안아주고 업어주어 길른 유모다。이어미와 꼭 가티 생각하여라。』

이 때에 한 오십된 부인이 들어온다。

어머니는 이차돈을 가르치며

『유모 보게。우리 도련님이 이러케 엄전한 어른이 되어 네그려。어저께 서방님이 장원하셧다고 유모가 넘어나 깃버서 울지아니하엿나。지금 상감께서 부르셔서 예궐을 한다기에 내가 지금 이 옷을 입혓는데、꼭 자네게 보이고십허서 불럿네。어떤가。꼭 돌아가신 나으리 가트시아니한가。저입모습 하고 저 빙그레 웃는 눈찌하고?』

『참 엄전도 하시오。이 유모의 이 팔에 안겨서 즈무시던 도련님이 어쩌면 벌서 저러케』

하고 유모는 또 눈물이 글성글성하고 말이 막힌다。

『유모、언짠아하지말어。』

하고 어머니 자신도 언짠아하면서、

『그래 내가 서방님 보고─아 서방님인가、인제는 한나마 나으리시지。그래 나으리보고 그랫네、유모를 꼭 나은 어미나 와 가티 알라고。』

『황송도하서라』

『인제 나라에 으뜸가시는 전하신 양반이 되실텐데 이 유모도 나으리께서 크게 귀하시게 되시는것을보고야 죽겟습니다。』

『그런데 또 전장에를 나가면 어떠커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을 어찌합니까。그저 하나님께서 도으시고 검님께서 도으시와서 어느 전장에를 나가시든지 백전 백승하시게 하옵소사』

하고 유모는 하늘을 우럴어 손을 비빈다。

京畿道棉花統制

九月卅日取締規則發布即日實施

買入者指定、繰綿許可制

京畿道에서는 棉花取締規則을 九月三十日 道令 第十八號로서 發表하얏는데 이規則은 發布日로부터 施行되엇다。

이規則에 依하면 京畿道內에서 棉花를 買入하고저하는者는 道知事의 指定을 받는者에限하며 棉花賣繰業又는 繰綿業者도 道知事의 許可를 得하여야 되게 되어 이로써 京畿道의 棉花統制는 强化되엇다한다。

取締規則全文

第一條 本令에잇서 棉花라함은 實棉及繰綿을稱함

第二條 棉花의 共同販賣에對하야는 道知事가 每年 그期間及 場所를 指定함

第三條 共同販賣所에서 棉花를 買入하는者는 每年 道知事가 此를 指定함

第四條 棉花賣繰業又는 繰綿業을하고저하는者는 左의事項을 가추어 道知事의 許可를어들일

一、住所 職業 氏名 生年月日 但 法人은 其名稱 目的 事務所의所在地及 代表者의住所 氏名

二、棉花의 買入을하고저하는者는 그地域及期間 棉花賣繰業又는 繰綿業을 하고저 하는者는 그期間 營業所及作業場의位置、原動機의種類及馬力、繰綿機의種類別臺數。

前項 第二號의 事項을 變更코저할時는 道知事의 許可를 受할일

道知事는 第一項及前項의 許可를할時는 第一號樣式又는 第二號樣式의 許可證을 交付함

第五條 指定又는 許可를 受한者는 代理人으로하여곰 그業務를 하고저할時도 그住所氏名 生年月日을 屆出하야 道知事의 許可를 受할일 代理人을 解任又는 變更할時도 亦同

第六條 許可를 受한者 左의各號의 一에 該當할時는 遲滯업시 그事由를 具하야 許可證의 再交付를 出願할일

一、許可證을 紛失한時

二、住所又는 名稱、目的、事務所의住所又는 代表者를 變更할時

第七條 指定又는 許可를 受한者 그業務에 從事할時는 指定을 認證하는 書類又는 許可證을 携帶할일

第八條 左의各號의 一에 該當할時는 許可를受한者 그代理人又는 그相續人은 遲滯업시 許可證을 返納할일

一、許可期間滿了時

二、許可를 受한者死亡時

三、許可를 受한者 그業務를 廢止할時

四、許可를 取消할時

第九條 棉花取引에 關한 品位等級은 道知事가 定한見本에依할일

第十條 賣買에 供한棉花에 故意로水分을含하게하거나 又는 異種棉、土砂그他異物을 混入하는等 棉花의品質을 低下식히는 一切의行爲를하지못함

第十一條 棉花의 買入을하는者는 第三號의樣式、棉花의賣繰業을 하는者는 第四號樣式의 帳簿를 備付할일

第十二條 道知事가 命한棉花檢査員은 指定又는 許可를受한者의 業務에 關한 檢査를할 수 있으며 棉花檢査의結果第十條의 規定에 違反되는事實이잇슬時는 必要한措置를 命함

第十三條 道知事는 取締上必要한 第五號樣式의 報告를 命하며 그業務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發할 수 잇음

第十四條 指定又는 許可를 受한者 本令에 依한 命令에違反할時는 指定又는 許可를 取消함

第十五條 第四條乃至 第八條의 規定에 違反한者는 百圓以下의 罰金又는 拘留又는 科料에處함

第十六條 指定又는 許可를 受한者 繰綿業者로서 그業務에 關하야 本令의 規則에 違反할時는 그代理人、戶主、家族、同居者、雇人其他의 從業者가 本人의 指揮에 應하지안는것이라도 本人을 罰함

第十七條 道內에住所又는 營業所를 가진者로부터 道知事에 提出할書類는 所轄府尹郡守를 經由할일

附則

本令은 發布日부터 施行함

農村機業을奬勵

織物의需要自給目標로

殖産局의方針決定

朝鮮內의 機業은 近時 大資本經營에依한 諸事業勃興으로 依然殷盛한一面 農村副業으로서의 機業伸展性은 去益 有望케 되고 特히 原料供給方面의 朝鮮內自給의 可能性이 新刺戟을 加하야 이方面에의 中小工業新設과 産組共同作業의 事業開始도 續出하는狀況인바 總督府殖産局에서는 이動向에鑑하야

一、朝鮮內의 織物需要는 朝鮮內에서 自給自足할것

二、同趣嗜同好的인 對滿對中需要에 着眼할것

三、農村振興의 一翼으로서 農村의 餘剩勞力을 工業化할것

의 三見地로 朝鮮內農村에 積極的 機業奬勵를 行할方針을 決定하고 그具體方法으로서

一、如何한 機業을 奬勵할가

二、그機業組織과 販賣方法等에 對하야 過般以來 愼重硏究中으로 今秋中에 總督府와各道産組、金組其他의 關係를 網羅하야 機業奬勵에 關한 對策協議會를 열기로 決定하엿스며 總督府에서는 이에併行하야 明年度로부터 各道에 機業關係 技師設置와 織物檢査의 各道統制를 實施할 方針이라고한다

收穫豫想意外多

米價急遽反落

朝鮮米豊作까지作用

朝鮮米 第一回 收穫豫想은 一千七百八十萬石으로 豊年이라 할수잇스나 日本內地 米作豫想이 六千萬石臺割은勿論 五千五百萬石以下說까지 傳하는 凶作으로보아 正米市勢가 그래도 强調를 繼續하고 잇섯스나 九月二十日 現在로 農林省에서發表한 第一回收穫豫想이 六千五十六萬四千石으로 一般의推想에 比하면 意外의多量이고 九月二十日以後의 惡天候로因한 減收가 相當타 할지라도 正式發表를본 三日의淸算이

市場은 朝鮮米 豊作까지 새삼스러히 作用하야 各地場의 乘勢賣叩와 買方의 投物 等으로 前場에 大阪先限은 三十一圓開場割인 三十圓九十三錢으로 仁川先限 二十九圓開場割인 二十八圓五十七錢이란 低價로崩落되고 朝鮮米各地正米도 京仁兩地共히 各五十錢低인 丸仁新米三等三十圓五十錢 四等二十圓二十錢이엇스며 群山正米도 五十錢低이엇는데 同米의 暴落은 淸算의 急落과 新米出廻의 實物이 漸增되는 때문이엇다한다。

入庫으로 이미 一萬八千石이 入庫되고 이로부터 入庫漸增으로 보인다고한다 (單位石)

▲木浦三八、八〇八▲群山八七、九六〇▲江景一、七九七▲仁川一三〇、六〇▲釜山九二、三五七▲馬山四三七〇▲鎭南浦四八、七六一

實收減少이래도

目前一段低示現?

二日午後부터落潮

【東京電話聯合】第一回 米穀收穫豫想은 大體로 六千萬石以下로 되지안흘가고보이고잇섯슴으로 一般으로 人氣的買煽이마침드모양이며 二日午後의 淸算米低落은 大體로 이것을 傳하야 賣物이나왓다。그런대 이仕手關係는 三期를 通하야 顯著한 買出動으로 地場이 實賣成이엇기때문으로 收穫豫想그것은 九月以降의 天候不良으로보다 實收高는 더욱 減少하리라고보인다 一方에는 朝鮮米의 豊作豫想도잇서 今朝來 地場이乘勢하야 賣叩함에 反하야 買方主力側은 看過하고 잇섯슴으로 다시買出動하지나 안흘가보이고잇서서 收穫豫想發表는 이低價를 더욱賣叩하지나 안흘가고 보인다

米倉在庫高

新米漸次入庫

米倉會社의 一日現在의 在庫高는 四十萬四百八十二石으로 前月에比하야 二萬六千九百六十五石의減少를 示하얏는데 鎭南浦支店에는 新米의入庫를 보는中

長津江水電

送電開始

十月下旬부터

長津江水電에서는 九月內로 堰堤完成을 보앗슴으로 十月七、八日頃에 湛水를 行하고 十日부터 發電을開始하야 遞信局의檢査를 受한後 下旬부터 正式으로 發電키로 되엇는데 最初는 三萬六千키로 一臺만 發電하고 興南朝窒工場에 送電하며 十一月부터 更히一臺를 增設하야 十一月中旬부터 朝鮮送電經由 西鮮方面에 送電하고 十二月부터 更히 一臺를 增設하야 十萬八千키로의 第一期全發電을 하기로 決定하얏다

產業組合設立의

申請이俄然激增

設立希望이四十餘組의多數

十年中百組合突破?

朝鮮內 產業組合은 活動을開始하고 九年度新設十六組合 舊組合은 모두黑字로 轉換케되고 面目을 一新하는等 各道가各各新設計劃이 具體化하는바 그結果 今年度豫定設立은 總督府에서 國費補助支給은 十二組合으로 豫定이엇스나 最近 各道의設立希望은 그四倍의 四十餘組合에 達한다 그中 가장 產組熱이 熾烈한곳은 慶南으로 申請十八組合에 達하고 同道分은 國費補助不要하고 道費補助로 創始하는곳도잇스며 慶南만 今年中에 十一組合을 創立할豫定이다 昭和八年當時에 四十有餘에 不過하든 產組도 今年六月의 七十三에 達하고 十年中에는 百組合을 突破할豫定이다 그리고 總督府에서는 過去의 實績에 鑑하야 指導者養成에 注力할 方針으로 十月二十日부터 釜山에서 指導者講習會를 열리라고 한다

琉璃「컵」이……

英國으로輸出

朝鮮硝子工業有望

朝鮮의 硝子工業은 原料인硅砂의豊富와 勞銀의比較的低廉으로 最近 漸次勃興하야 有望視되는데 그中琉璃컵가 八月中一千三百圓 九月中 一千圓英國에 初輸出되엇스며 朝鮮으로서 琉璃製品이 海外에 進出한것은 始政以來 이번이 最初의現象으로 今後는貿易上 有利한 條件으로 매우發展되리라고 期待된다

戰爭念慮로

紐育株式暴落

【紐育二日發電通】못솔리니伊首相演說에 依한 戰爭勃發의 念慮로 賣物이 殺到하야 스틸株二弗半低 米國電信電話二弗八分七低 제네랄모타株二弗八分一低로 有力株는大幅의 低落을나타내이고 工業株三十種平均株는三弗四十五仙이 떨어저 百二十八弗六仙으로되고 鐵道株는 一弗五十一仙이 떨어저 三十二弗六分의一仙으로 되엇다고한다

滿洲國에서도

製鍊事業統制

【新京電話商通】鑛業法實施에依하야 滿洲國의 鑛業企業은 勃然擡頭되엇는데 滿洲國으로서斯界에 寄與하고 또 製鍊事業의統制를 圖키爲하야 康德二年度에 그設立準備調査費로 五千圓의 豫算을 計上하고 明年度豫算에 正式設立豫算을 計上할豫定으로 目下 立案中이다 그래서 高橋實業部總務司長은 朝鮮의 鎭南浦、咸興等各地製鍊所를 視察中으로 同氏의歸任後 部內會議를열고 滿洲國의實情에即한 製鍊所를設立하리라고한다 金、銅、鉛等의 製鍊所는 安東、承德、本溪湖等에 設置도 잇스나 結局工業의中心地인奉天에 設置될터이라고한다

米移出、粟輸入

各月別數量

昨年十一月로부터 今年十月에至하는 今米穀年度의 各月別米移出과 粟輸入 數量은 如左한데 米移出에 잇서는 昨年十二月의 百三十五萬九千八百八十六石이 斷然首位이고 四月부터 六十萬石臺、六、七月이 五十萬石臺로漸減되다가 八月은 二十萬石臺、九月은 十萬石臺로 大激減되엇스며 粟米輸入은 昨年十一月이 最高인 十一萬石으로 이것은 逐月減少傾向이엇다。

	米移出	粟輸入
十一月	一、一三四、四一〇	一一〇、三五五
十二月	一、三五九、八八六	八八、八〇五
一月	九一〇、〇七一	八八、二九六
二月	一、〇六一、九七五	七五、一八四
三月	一、〇一〇、四五八	五三、六九五
四月	六九二、七〇七	四二、五五三
五月	六四〇、六〇三	四〇、四四八
六月	五七九、三九九	八〇、六三三
七月	五九九、〇〇八	二四、三六八
八月	二五八、五四〇	二六、一三八
九月	一五二、六三六	二九、二一四
累計	八、二三〇、一五三	一、〇四八、三一五

煙草豊作

一割五分增收?

朝鮮內煙草의 作況은 平壤支局管內의 冷害가 잇스나 全體的으로는 天候良好로 平年보다는 一割五分의 增加 豫想이다 그리고 收納豫想은 朝鮮種四百四十萬貫、日本內地種卅萬貫、黃色種 八十五萬貫計五百五十五萬貫이다

米日爲替續落

【紐育二日發聯合】今日의 米日爲替는 前日과 比하면 賣二十八弗七十二仙으로 三仙低이오 買二十八弗六十九仙으로 三仙低이다。

▲東京爲替(三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五 買 二十八弗四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大阪爲替(三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五 買 二十八弗四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三

石灰窯業三回賣出

石灰窯業共販組合에서는 二日午後 朝鮮向第三回賣出을 行하얏는데 新賣出은 四、五月物로 賣價는 第二回의 三月物에比하야 一錢高인一袋 二圓三十三錢이다

經濟界消息

○朝鮮大邱買鑛所十月末頃買鑛開始 朝鮮製鍊大邱買鑛所는 不遠新築의 竣工이 될터인데 機械의設備가 아즉도 時日이걸닐모양임으로 買鑛開始는 十月末이나 十一月初가되리라고

共販價格協定

京畿道 棉花共販價格의 協定은 二日午後二時 道會議室에서 南北綿業株式會社水野工場長 日下部光太氏와 協議한 結果 左와如히協定이 成立되엇다

一、共販棉花는 南北綿業株式會社가 買受할것

一、共販價格은 道設 綿布所의 協定價格을 基準삼어 「스트리크도미드링」市勢에 準하야 共同販賣所로부터 水野工場까지의 荷造運賃工賃의 金融手數料等을 控除한것으로서 一等級의 價格을決定하엿다

一、等級의比率(陸地棉 一斤에對하야)

一等級 一〇〇

二等級 九五

三等級 八五

四等級 七〇

五等級 五〇

一、在來棉價格은 陸地棉보다 各等級 一斤에對하야 二錢低廉

一、「스트리크도미드링」市勢는 道殿會가通報함

今日財界 (三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一斤 價 在來 [illegible]

◆金融 市中金融 [illegible]

◆株 (單位圓)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大阪現物 [illegible]

商況 (三日)

株式 波瀾裡에 反高

前場反高

昨後場崩落인뒤를 이어 今前場도 伊에軍衝突說을傳하고 米棉高、綿絲高의好材料까지 잇서 다시反騰되어 勢이엇다가 戾賣物로 東新百六十錢、日產八十一圓五十錢에 下押되고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圓高인 百六十一圓十錢、大新一圓二十錢高인 九十八圓丁、日產六十錢高인 八十二圓十錢、朝新二十錢高인 三十一圓六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百二十九圓丁 商船新十八圓三十錢 日普六十六圓五十錢各一本이엇섯다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波瀾

後場은 東新百六十二圓丁 大新九十九圓十錢 日產八十二圓四十錢에 一齊高의後騰勢活潑하다가 다시賣押되는 依然波瀾이엇다

東新波瀾重疊

戰爭好影響의 現實化第一步와 記錄的出超에 動機로 再轉上向하야 東新은 新高價로奔進되나서 和蘭金輸禁止說로 急反落되어 後場關門割인 뒤를이어 今前場은 伊에軍衝突說、米棉高로 綿絲高等에依하야 紐育株式暴落에 不拘코 東新을 先頭로反騰이엇스나 다시戾賣物로壓抑되어 小波瀾이다가 結局은 昨後引보다 反高大引되엇섯다。

興味는百%

東阿事態急迫으로 伊에開戰은 꼭잇슬것이오 延하야 歐洲第二次大戰까지 聯想되는 此際이라『戰爭卽景氣』이라는 人氣가 優勢한것이 事實로서 東新은 戰爭이업스면 二十圓低인 百四十圓、戰爭이잇스면 四十圓高인 二百圓이라고보는사람이잇서 强氣便에 依然기운이잇서보인다 再三再四 戰爭氣分으로 되엇스며 또昨日과가티 和蘭金輸禁止說가튼『데마』로亂高下를 演한것은 市勢가 天井에 가까운것을 暗示하는 證左이며 정작開戰되어도 別로 올느지안흐리라는 觀測이업지도안치만 戰爭은 氣勢로 어떠케든지 擴大되는것이오 市勢는 人氣로 어떠케던지 熱狂할수잇는것이다 그럼으로 이點으로 보다면 戰爭 卽景氣이란말을 輕視할수도 업는터로서 十月은 政變說도잇고 豫算編成期인만큼 勝負부터의 波瀾이 激甚한 十月市勢의 興味는 百%일것이다

人氣株와事業株

人氣株는 依然 歐洲時局의影響에依하야 戰時氣分으로 市況이動搖될것이나 事業株로말하면 下期決算을 압두고 業績檢討市勢가戰爭市勢보다도 實質的으로 支配케 될것이다。卽配當增配를 不拘코今期業績을 보고서 將來를推測할採算市勢가될것이라는말이 잇다。

期米 多少豫想

瓦落

前場慘落

昨後場阪地三十一圓十九錢止와共히 二十九圓〇四錢에 寄앗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三十錢에 十一丁反高를 捕하고 二十九圓十二錢인 八丁高로 寄付한後 阪地一節二十五錢인 五丁反落을 接하고 二十八圓七十一錢인 四十一丁反落이고 五十七錢에又復瓦落하더니 結局三十圓九十三錢의 止價를 見한後에는幾分底堅하야 六十三錢으로 小戾止場하엿다

後場反戾

後場은 二十八圓[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聯合】今朝當限落의市場은 賣方氣乘薄이오 極히閑散이엇다

實物前場取引

實賣高八十枚

◆大阪商船 [illegible] ◆日本郵船 [illegible] ◆金剛電 [illegible] ◆朝鮮送電 [illegible] ◆川崎造船 [illegible] ◆川崎鐵 [illegible]

一回豫想發表와

各地俄然反落

今年度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은 六千五十六萬四千六百三十石으로 前年度實收高에 比하면 八百七十四萬七千三百十四石即 一割六分의增收를 示하엿다 八月十五日現在稻作豫想六千百萬石의 豫想보다는約百萬石減收이나 그러나 一般이豫想하는바와는 意外의增收豫想임에 至하엿슴으로 賣米仮勢에疲弊되어오든 賣方의 勢力이 展開되어 阪地는約八十丁의反落을告하고 當地는 百十餘丁의 慘落을告하엿다 阪仁兩地를不問하고 來客買地場賣의關係로 又一層軟弱에落하나 그러나 此落潮가 一時的이아닐가한다 그理由는 今回豫想發表는 九月二十日 現在調査로서 其後天候가 不良하야 四國、九州、關東地方의 颱風被害가 不少하엿고 北海道、靑森、岩手、宮城、秋田、福島等地의 天氣가또한不良하엿슴으로 第二回豫想은 적어도 二百萬石程度의 減收를 示하리라고 硬派는 云云果如何?

軟派의雪辱戰

大壯觀의落潮

本年六月以來의 橫斷하는大勢에 買方은 가진屈辱을當하야 몃번이나 陷落의悲境에 빠저잇는바 多幸히도 今回日本內地의第一回豫想發表가 例外의 樂觀數字임을機로하야 最後의 厲力을다하야‧猛烈賣叩함으로 當地市勢는 又一層軟弱하야 實로 百十餘丁의慘落인 落潮滔滔의大壯觀을 呈하엿다 就中期近은 더욱軟弱하야 中限은 昨朝二十九圓七十七錢에서 二十八圓四十錢인 百三十七丁의 反落을 告하고 中限은 三十圓五十四錢에서 二十九圓十五錢인 百三十九丁의 慘落을示함에至하엿다 餘勢가아즉도 더軟弱할지는몰으나 第一回米作狀況을 調査한後의 被害가不少하엿슴으로 第二回豫想發表가어떠한數字를 示할지 安心할수업스며 또平年作이못되는때는 明年度의需給不安이 업지아니할모양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市場小感

株

東阿事態는 去益重大化하야 今日入電은 伊에東衝突을報하자 昨日崩壞된 市勢가또反騰▲波瀾이거듭할수록『마바라』는迷惑만더할뿐 ▲歐洲大戰當時도 最初는 그러케擴大되지안홀것으로보앗섯는데 이번도 常識的으로는 擴大되지안홀것으로 보는便이만흔모양 ▲擴大되던말던 日本의立場은 漁夫의利를得할것이오 景氣는 맛치大正六、七年頃가티 될것이아닐가?그러면 今後數年은 意外의큰市勢를可期하고 東京서어떤老人은氣焰萬丈이라한다▲九月十九日의 東新高價 東京百六十四圓六十錢 大阪百六十四圓五十錢이 天井이냐 아니냐가 相當히 問題가되어 天井觀下에 판사람이만헛섯는데 新甫에 一氣上騰한 그强味는 吟味할만한 點으로서 今月初高價를 또天井이라고 말기는조심이不無

米

▲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은 意外에도 六千萬石以上의 數字를 示하야 各地一齊慘落을 告하엿다▲當地는 又一層賣氣旺盛하야 寄로百十餘丁의 慘落으로 軟派는 全혀 總落城을 當한光景이다▲이만하면 軟派의 雪辱이되엇다고할는지는 몰으나 相場이란 一落後에 반드시 反撥이잇는만큼 追擊賣는한번 考慮할일▲實로 今回發表한第一回豫想數字가 다시加減이업다고하면 前途需給不安은 업슬듯하나 第一回調査를 마친後의 風水害의 災厄이 不少하엿슴으로 第二回豫想은 六千萬石臺를 割破하기가 十常八九이라고 市中商談이 濃厚▲何如間 將來의 大勢는 어떠하든지高價에 百十餘丁이떠러젓스니 一反撥은업지안흘듯▲그러나 아즉도浴月以來의 保合範圍는 脫치못하엿다 이로부터下放? 又復保勢?▲앞의事情으로보아서는 新米氣分이濃厚한만큼 누구나賣勢成을 하려할것은 事實이나 第二回豫想發表의 不安이 업지아니한 만큼賣擊戒가 亦所要

堂島前場急落

【大阪電話】第一回收穫豫想의意外多로 投物이 續出하야 節節低落步調이엇다

實方 田中眞、中東側、地場

買方 馬越、神戶側、朝鮮側、

各地正米

京城急落

定期의 慘落을 보고 氣配一氣로 五十錢 急落인 丸仁三等三十圓五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八十錢

仁川崩落

日本內地 實收豫想이 말읍과 新米와 實物氣勢으로 氣配 五十丁이 崩하얏스나 買方이 形勢傍觀으로 取引이 閑散되어 丸仁新米三等三十圓五十錢 四等二十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錢

釜山小堅

新米의 出廻가漸增하고 人氣回復되어 朝米必需取引이 [illegible] 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四錢

大邱小弱

新米出廻 稀薄으로 市場實物이 極少하고 價格이 少弱 [illegible]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群山暴落

商習關係로 産地의 早재로 出廻漸增인데다가 今朝는定期의 急落을듯고 實物이 殺到하야 市勢가 一氣로 五十錢 暴落을 演한 [illegible]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膠着

賣買雙方共히 傍觀가업고 動機待로 膠着 丸木多摩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illegible]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朝取短期 (三日)

	前寄	前引	後寄	低價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船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現株◆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三日)

◆朝取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三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前場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illegible]

商品 (三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大豆粕期米◆ ◆鯖油冲價◆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鰊搾粕冲價◆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一ノ二
電話長九一六 一六九三 一二六五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金銀高價買入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七
殖金商會
電本四五八〇番